



녹색불이 켜지면  
횡단보도로 안전하게  
건너 주세요

## 빠른 길보단, 바른 길로

당신이 살아온 삶을 가르쳐 주셨듯,  
도로에서의 지혜도 가르쳐 주세요.  
오늘도 당신에게 배웁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예방 홍보대사  
배우 고경표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안전기술지원, 교통사고조사, 교통안전교육·홍보, 교통방송(TBN), 운전면허 관리,  
교통과학연구개발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기관입니다.



KoROAD BIMONTHLY MAGAZINE

신  
하  
애

2023 9+10 VOL. 477

# 신호등

KoROAD BIMONTHLY MAGAZINE  
2023 9+10

VOL. 477

도로에서 마주하는 분홍색 유도선은  
안전을 위한 이정표입니다.  
도로 위 유도선과 교통안전표지에  
유의하며 안전운전하세요.





분홍색의 의미  
#사랑 #희망 #순진함  
#은정 #부드러움  
#낙천주의



“  
**희망의 이정표**  
”

분홍색은 다양한 의미를 갖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랑을 연상시키는 하트가 떠오르죠.  
또 순수함이나 부드러움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도로에서 분홍색은 운전자에게 전하는 따뜻한 안전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분홍색이 만든 길은 안전한 이정표가 되어주니까요.**  
**그 길을 따라 오늘도 교통문화 선진국으로 가는 희망을 품어 봅니다.**



### 마음으로 그린 길

- 06 **모두의 약속**  
선 밟으면 아웃!
- 08 **환경X안전**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우리들의 자세
- 12 **안전과 위험 사이**  
안전으로 향하는 길
- 14 **진실 혹은 거짓**  
도로 위에 답이 있다
- 16 **안전 히어로**  
철저한 안전의식 전파하는,  
류명걸 모터사이클 선수
- 22 **도로교통칼럼**  
바다와 함께 살아야, 반려해변 입양제도
- 24 **세계 친환경 도로**  
유럽 최초, 친환경 고속도로 탄생

### 약속으로 채운 길

- 26 **세계 한 바퀴**  
타임슬립 체코 자동차 여행
- 32 **도로 상담소**  
반려동물이 교통사고를 당한다면?
- 36 **운전대 심리학**  
야간 운전 중 과속하는 심리
- 40 **자동차 백과**  
자동차 수명 단축시키는 습관
- 42 **블랙박스 SOS**  
신호위반 교통사고 분석
- 46 **트렌드 읽기**  
'초보운전자 스티커'를 둘러싼 진실

### 실천으로 지킨 길

- 48 **이유 있는 공간**  
철도 폐선이 남긴 낭만 여행지
- 52 **원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정선메드 / 우리마더 / 함명옥숲학교
- 53 **교통안전 독자 이야기**  
바벨수록 돌아가자
- 54 **도로교통공단 소식**  
도로교통공단, 폭우 피해 발생한 도로  
305km 점검 등
- 58 **도로교통 안전소통**  
초보운전 스티커 올바르게 부착하세요. 등
- 60 **도로교통 안전소식**  
하반기에는 교통약자·취약분야  
교통안전 중점적으로 챙긴다
- 61 **독자 이벤트**
- 62 **신호등 구독 생활**
- 64 **독자 마당**
- 66 **호동이 색칠놀이**

**통권** 제477호  
**발행일** 2023년 9월 18일  
**등록일** 1980년 8월 22일  
**발행처** 도로교통공단  
**발행인** 이주민  
**편집인** 방연찬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2(26466)  
**전화** 033-749-5085  
**제작·디자인** 경성문화사 02-786-2999  
**외부감수** 황준승

「신호등」에 실린 자료는 사전 동의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호등」에 게재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호등」은 환경부와 국제산림관리협회의회에서  
 '환경 인증'을 받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친환경  
 재생필프(DIP) 함유율이 20% 이상인 제지를 사용  
 해 환경 친화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  
 연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알코올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식물성 잉크를 잉크로 인쇄하였습니다.



**오디오 E-BOOK**  
 QR코드를 촬영하면 오디오북으로  
 신호등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바로가기  
[blog.naver.com/koroadblog](http://blog.naver.com/koroadblog)



**네이버 포스트**  
 바로가기  
[post.naver.com/koroadblog](http://post.naver.com/koroadblog)



**페이스북**  
 바로가기  
[facebook.com/korearoad](http://facebook.com/korearoad)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instagram.com/koroadblog](http://instagram.com/koroadblog)



## 선 밟으면 아웃!

스포츠에서도 도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횡단보도 앞 정지선은 보행자를 보호하는 생명선입니다.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선을 밟지 말아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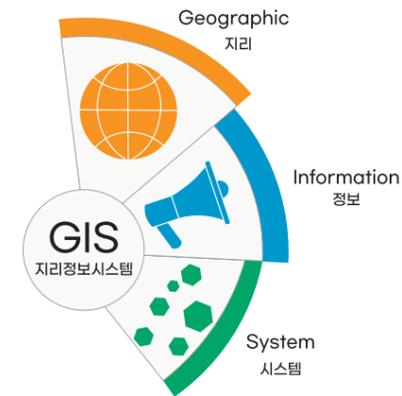
# 지구를 지켜라!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우리들의 자세

대한민국은 기후 위기를 대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도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도로에서는 어떨까. 도로 위 탄소중립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살펴본다.

글. 편집실  
출처. 환경부, 국토교통부, 도로교통공단, 수도권대기환경청, 녹색교통운동, 불보코리아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 기술의 발전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다. 일방적인 노력으로는 이뤄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모두의 관심과 실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력까지 전방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여기엔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기술도 포함된다. 현재 사용 중인 에너지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대체하는 방향으로 기술은 발전하고 있다. 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은 탄소중립 도시구현을 위한 핵심 기술 중 하나다. 지리정보시스템은 도시 내 지리(지형 공간) 데이터를 관리·분석해 공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이를 활용하면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터빈의 위치를 최적화해 재생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도시계획 단계에서 활

용하면 디지털 트윈이나 3D 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 친환경적인 도시 설계 및 관리가 쉬워진다. 이 밖에도 탄소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거나 시뮬레이션을 통해 탄소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IT 기술이 도시 전체를 친환경적으로 활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다. 기술의 발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도로 공사에 사용되는 아스팔트를 친환경 소재로 사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은 세계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페타이어를 재활용한 재생 타이어, 슬라임 물질을 활용한 과속방지턱 등 도로 시설물이나 자동차 부품에도 친환경적인 요소가 추가되고 있다.



민관을 아우른  
캠페인 전개,

## 관건은 국민 참여도



이렇듯 기술의 발전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성장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인식이다. 개발된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기후 위기에 대처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고도로 발달한 기술조차 힘을 잃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에 다양한 기관과 단체는 다채로운 캠페인을 전개하며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2018년부터 친환경 운전습관 캠페인, 친환경 교통주간 캠페인 등을 전개하며 국민에게 친환경 운전 습관이 수도권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 결과 캠페인 진행 당시 하루 평균 9,000명 이상의 운전자가 참여하는 등 높은 국민 참여도를 기록했다.

친환경 운전을 독려하는 민간단체 녹색교통운동 또한 친환경 운전습관을 알리고 있다. 녹색교통운동은 환경부, 한국자동차협회와 함께 친환경 운전 캠페인을 개최했다. 그들이 주목한 방법은 바로 스마트 운

전 앱 이용이다. 녹색교통운동은 스마트 운전 앱을 이용하면 자동차 한 대당 연간 3만 9,000원의 환경비용과 24만 원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녹색교통운동은 일반 운전자 및 버스 운전자들에게 스마트 운전 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캠페인을 진행했다. 특히 운수회사와 함께 버스 운전자들에게 스마트 운전 앱을 활용하게 한 결과, 7,764대의 버스 운전자들이 참여했으며, 총 4억 6,000만 원의 환경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한편, 볼보 코리아, 롯데렌탈 등 민간기업도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친환경 운전 캠페인을 전개하며 국민들의 친환경 운전 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캠페인은 모두 친환경 운전을 생활화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앞서 소개한 사례처럼 많은 이들이 함께 실천하면 적지 않은 효과를 낼 수 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친환경 운전 캠페인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이유다.

□ 안산면허시험장 탄소중립 캠페인 □ 수도권대기환경청



적극적인  
업무협약으로

## 다양한 캠페인 전개하는 KoROAD



도로교통공단 또한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다양한 기관, 기업과 손잡고 국민이 도로 위 탄소중립을 실천하도록 독려하는 캠페인을 전개한다.

지난 6월 도로교통공단 TBN한국교통방송은 한국환경공단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기후 위기로 인한 문제점과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방법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두 기관은 '넷-제로(Net-Zero)' 탄소중립 사회를 목표로 국민의 참여를 끌어낼 계획이다. 도로교통공단 TBN한국교통방송은 화석연료를 쓰는 내연기관차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14%를 차지한다는 점에 주목, 청취자들에게 친환경 운전을 유도하는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제작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대국민 인식 전환을 위한 환경 교육과 홍보캠페인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도로교통공단 TBN한국교통방송과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8월에는 SK이노베이션, 중앙자원봉사센터, 해양경찰청,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등 5개

기관과 함께 탄소중립 및 ESG 경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각 기관은 적극적인 교류와 플로깅, 대국민 인식개선 콘텐츠 및 캠페인 제작 등에 함께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운전자들의 친환경 운전법을 유도하는 인식 개선 캠페인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협약식 이후 각 기관은 '안녕! 산해진미 플로깅'에 참여하며 의지를 다졌다. 산해진미 플로깅은 산과 바다, 도로를 지켜 아름다운 지구를 만들자는 SK이노베이션의 사내 캠페인을 확대 운영한 것으로 기후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기획됐다. 도로교통공단은 2021년부터 동참하고 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은 내부적으로도 기후 위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안산운전면허시험장은 세계 차 없는 날을 맞아 탄소중립 홍보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임직원의 플로깅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는 중이다. TBN한국교통방송은 <대국민 환경 캠페인>, <지구를 살리는 2분> 등 기획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한다.

□ 업무협약 체결 □ 산해진미 플로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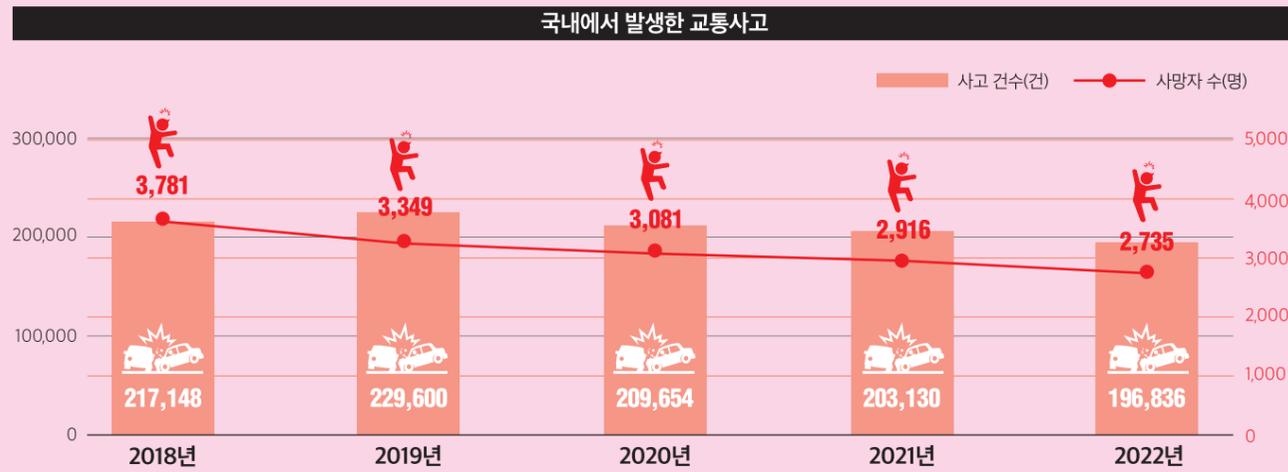


## 도로 바로 읽기가 핵심 안전으로 향하는 길

모든 운전자는 안전운전 의무가 있다.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준수는 물론, 도로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도로 위 운전자 안전을 위한 다양한 표지를 제대로 읽고 안전한 도로 생활을 이어가 보자.

글: 편집실  
출처: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매뉴얼>, 서울시 보도자료, 남양주시 보도자료

### 안전운전 실천,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 32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발생한 국내 교통사고 추세를 살펴보면 해가 지날수록 국내 교통사고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자 수가 2018년 3,781명에서 2022년 2,735명으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OECD에 가입한 총 36개 국가 중에서는 32위(2020년 기준)라는 다소 낮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5.9명으로 29위에 그쳤다. 같은 항목에서 1위를 차지한 노르웨이는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1.7명, 36위인 미국은 11.6명이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은 매년 교통사고 정보를 교류·분석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별 사고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관련내용은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OECD 국가별 교통사고 분석 확인하기

### 도로 상황 확인하고 안전운전하세요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서는 도로노선별, 운전경로별로 도로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위험도로 예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과거 교통사고 정보와 실시간 기상정보, 돌발정보 등 융합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험단계를 4단계로 제공한다.



위험도로 예보시스템에서 도로 상황 확인하기

### 왼쪽? 오른쪽? 헛갈릴 땐 노면 색깔 유도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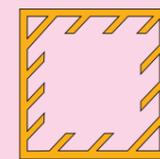
#### 노면 색깔 유도선

교차로, 나들목, 분기점 등에서 차로의 명확한 안내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해 노면에 설치하는 유도선

#### 유도선의 색깔

1개 방향 안내 노면 색깔 유도선의 색상은 분홍색으로 한다. 2개 방향 안내 노면 색깔 유도선의 색상은 제1방향(진행 방향의 중앙선에서 먼 쪽)은 분홍색으로, 제2방향(진행 방향의 중앙선에서 가까운 쪽)은 연한 녹색으로 한다. 다만, 노면 포장 재질의 색상이 열어 시인성이 불량한 경우 녹색으로 할 수 있다.

### 무슨 의미였지? 다시 보는 도로 노면표시



황색 정차 금지지대  
차가 들어가 정차하는 것을 금지



안전지대  
노상에 장애물이 있거나 안전확보가 필요한 지대(차마진입금지)



오르막경사면  
전방 과속방지턱 또는 교차로 오르막경사면



서행  
차가 서행해야 하는 곳

### 꼬리물기 그만, 황색 정차 금지지대

정차 금지지대가 기존 흰색에서 황색으로 달라졌다. 교차로 꼬리물기를 강력하게 단속해 교차로의 원활한 소통과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 만약 교차로 통행 중 적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황색 정차 금지지대에 머물고 있다면 꼬리물기로 간주해 단속할 수 있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 또는 과태료 5만 원)

### 교통안전 표지판의 종류

교통안전표지는 도로 이용자에게 통일된 방법으로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다. 목적에 따라 주의, 규제, 지시, 보조 등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주의

도로이용과 관련한 위험요소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설치



규제

도로이용과 관련한 제한, 금지 등의 사항을 해당 지점 또는 구간에 설치



지시

통행방법 및 통행구분 등에 대해 도로사용자에게 지시할 경우 설치



보조

주의, 규제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 여성전용? 이젠 가족배려 주차장!



서울시가 7월 18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기존 여성전용 주차장을 가족배려 주차장으로 교체 운영한다. 가족배려 주차장은 영유아, 임산부, 고령자와 동반자를 위한 공간이다. 단, 장애인 주차구역처럼 법적 구속력은 없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설치된 여성전용 주차장도 가족배려 주차장으로 이용된다.

한편, 가족배려 주차장은 출입구 및 승강기, 계단과 가깝고 CCTV가 설치되어 이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 남양주 땡큐버스

2019년 12월 남양주형 준공영제 버스 사업인 '땡큐버스'를 선보이며 금곡동을 중심으로 지역 내 권역 간 연계형 버스 노선을 신설해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추가로 하나의 관광 자원인 '트롤리버스(Trolley bus)'를 노선에 투입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분홍색? 하얀색? 노란색? 도로 위에 답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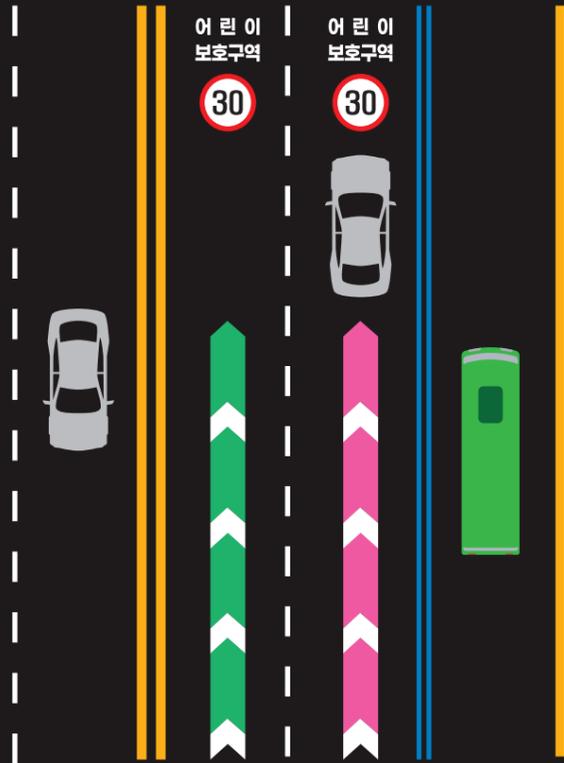
모든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안전운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끔 올바른 운행방법이 헛갈릴 때도 있죠. 이때 도로 위에 답이 숨어 있습니다. 헛갈릴 때는 도로표지를 잘 살펴 보세요. 어떤 속도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운행해야 하는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출처: 자동차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제1·2종 보통·대형·특수)

문제은행 221 번.

## Q1.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설치하는 노면표시의 색이 잘못 연결된 것은?

- ① 안전지대 중 양방향 교통을 분리하는 표시는 노란색
- ② 버스전용차로표시는 파란색
- ③ 노면색갈유도선표시는 분홍색, 연한녹색 또는 녹색
- ④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설치하는 속도제한표시의 테두리선은 흰색



### 도움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 일반기준 제2호.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설치하는 속도제한표시의 테두리선은 빨간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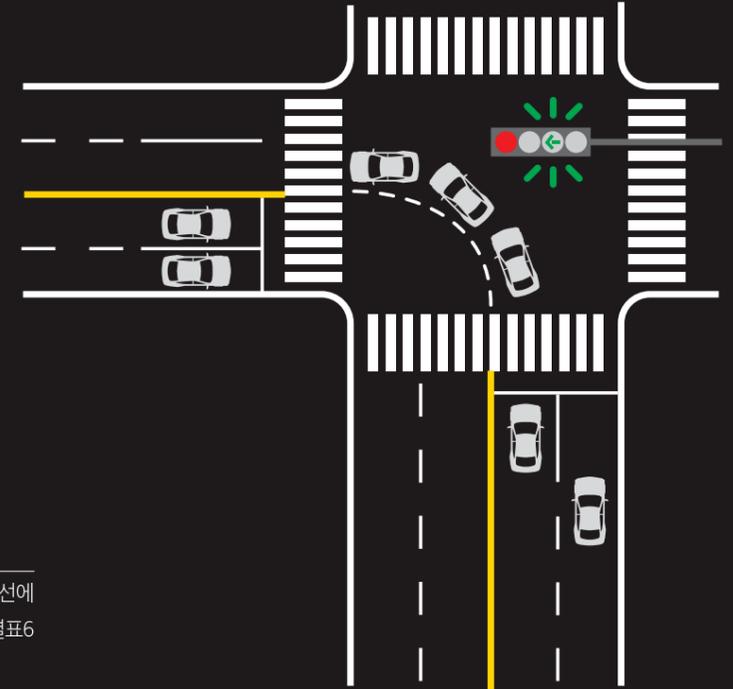
문제은행 365번.

## Q2. 운전자가 좌회전 시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교차로 내에 백색점선으로 한 노면표시는 무엇인가?

- ① 유도선 ② 연장선 ③ 지시선 ④ 규제선

### 도움말

교차로에서 진행 중 옆면 추돌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유도선에 대한 이해 부족일 가능성이 높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I·일반기준 2. 노면표시, II·개별기준 5. 노면표시)



문제은행 367번.

## Q3. 교차로에서 좌·우회전을 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2가지는?

- ① 우회전 시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한다.
- ② 혼잡한 도로에서 좌회전할 때에는 좌측 유도선과 상관없이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
- ③ 좌회전할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해야 한다.
- ④ 유도선이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에는 좌측 바퀴가 유도선 안쪽을 통과해야 한다.

### 도움말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하며, 좌회전 시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



## ? 「신호등」과 함께하는 문제풀이

직접 문제를 풀고 정답을 엽서에 적어 보내 주세요.

정답을 맞힌 독자 여러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지급합니다. 추후 상품 지급을 위해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작성해 주세요.





## 나의 삶, 나의 친구, 나의 미래 철저한 안전의식 전파하는, 류명걸 모터사이클 선수

위험하기로 손꼽히는 오프로드 경기 중에서도 가장 악명높은 다카르 랠리. '죽음의 랠리'라는 별명처럼 오지를 달리는 내내 고난의 순간이 이어진다. 그곳에서 450cc 모터사이클 한 대에 의지한 채 국내 최초로 완주에 성공한 주인공, 류명걸 선수를 만났다.

글. 차은서 사진. 안호성



### 평범한 직장인에서 모터사이클 선수로

\*모터사이클 하나로 국내 최초, 아시아 최고 타이틀을 거머쥔 이가 있다. 2020년 1월, 죽음의 \*\*랠리라 불리는 다카르 랠리에서 한국인 최초 출전, 아시아인 최고 기록을 갱신한 류명걸 선수다. 그는 52시간 40분 26초의 기록으로 다카르 랠리를 완주하며 종합 40위, 아시아 선수 중에는 1위, 루키 클래스 5위에 올랐다.

“좋은 기록을 냈다는 것도 물론 기쁜 일이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했기 때문에 성적과는 상관없이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대회 자체보다는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이 훨씬 더 힘들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면서 이륜차와 연을 맺었다. 졸업 후 모터사이클 업체에 취직을 하면서 정비를 배우고 본격적인 라이딩을 시작했다. 어디든 떠날 수 있다는 자유로움이 매력으로 다가왔다.

“취업을 하다보니 어쩌다 자전거 업체에서 일하게 됐어요. 처음부터 이쪽에 꿈이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정비도 배우고 하다 보니 '주행을 해 봐야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본격적으로 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선수까지 하게 된 거죠.”

10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국내외 대회에 참가하며 '류명걸 선수'의 삶이 시작됐다. 오프로드 모터사이클에 대한 국내 인지도가 높지 않아 후원사를 찾는 일은 항상 어려웠다. 다카르 랠리에 참가할 때는 후원금에 전세금까지 보태야 했다. 크고 작은 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쥔 결과 뒤에는 남모를 노력과 인내가 언제나 뒤따랐다.



\* 모터사이클: 도로교통법상 총칭되는 이륜차. 본 인터뷰에서는 모터사이클 선수 및 대회 등 전문 분야를 언급함에 따라 번갈아 사용함.

\*\* 랠리: 합법적인 방법으로 공공도로나 사유도로 등에서 속도를 겨루는 자동차 경주의 한 종류.

\*\*\* 원동기장치자전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최고정격 출력 11kW 이하).



“입문부터 다카르 랠리에 참가하기까지 20년이 걸렸어요. 많은 대회에 참가하면서 배우고, 사람들을 만나고, 고민도 해보고, 그 모든 과정이 저에게는 다카르 랠리로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 철저한 교육으로 후배 라이더 양성

다카르 랠리 이후, 그는 또 다른 여정에 접어들었다. CAMP R27의 대표로서 자신과 같은 꿈을 꾸는 이들과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가 2020년 설립한 CAMP R27은 라이더를 위한 공간이다. 이륜차 종류에 상관없이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아지트이자, 대회 출전 선수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나누는 공간, 또 입문자에게는 안전교육과 정비교육을 진행하는 교육장이다. 그의 캠프에는 류 선수의 지나온 날을 증명하듯 다양한 종류의 모터사이클과 안전 장비, 트로피들이 전시돼 있다. 그중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부러진 운전대. 2016년 대회 중 넘어지면서 부러진 운전대를 챙겨와 걸어둔 것이다. 그는 항상 운전대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안전을 다짐한다.

“이륜차는 사고가 나면 정말 위험한데, 속도를 겨루는 대회는 더 위험하죠. 대회 측에서도 이 선수가 대회를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가졌는지 확인하고 안전 장비까지 하나하나 사전에 검사합니다. 여기서 통과하지 못하면 대회에 참가를 못 해요.”

류 선수의 안전교육은 거의 스파르타 급이다. 4회에 걸쳐 오전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이론교육이 이뤄진다. 시청각 강의, 운전 방법과 장비 착용의 중요성은 물론이고, 자신에게 맞는 안전 장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말을 이어가던 그가 자신의 안전모에서 내장재를 꺼내 보인다.

“제 머리모양에 맞춘 거예요. 사람마다 두상이 다 다르잖아요. 기성품을 쓰면 안전모가 뜨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옆이랑 앞에 공간이 남아서 그곳에 완충재를 덧대 사용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충격이 골고루 분산 돼야 하니까요.”

### 이륜차 인식개선? 안전운전이 먼저

그가 이렇게까지 안전교육을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국내에 전문적인 이륜차 교육 기관이 부족한데다 면허시험의 난이도도 해외에 비해 쉽다는 것이다.

“이륜차는 좀 쉽게 생각하고 시작하는 경향이 있는 거 같아요. 국내에서는 이륜차 관련 전문 서적도 찾아볼 수 없어요. 대부분이 번

역서인데, 번역하는 사람도 전문가가 아니니 설명이 모호하게 기술된 책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가진 자료들, 그동안 느꼈던 것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전문적인 교재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오프로드에선 누구보다 빠르게 질주하며 속도를 경쟁하는 류명걸 선수. 그에게 가장 무서운 건 오프로드가 아닌 일반도로다.

“오히려 대회 때는 잘 안 다쳐요. 운전 중에 사고로 다친 것도 도로 위에서였어요. 앞차가 급정거하는걸 보고 급하게 세우다가 넘어졌죠. 도로에서는 주변 상황도 잘 봐야 하고, 방어운전도 해야 해요.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이륜차는 더 크게 다치죠. 요즘 많이 이용하시는 전동 킥보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최근 이륜차 운전자는 물론 전동 킥보드와 같은 PM 운전자도 늘었다. 이륜차의 매력을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사실이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팽배한 현 상황이 안타깝기도 하다. 그의 우려처럼, 도로에서 ‘멋진’ 운전실력을 뽐내



며 난폭운전을 하는 이륜차 운전자를 마주할 때가 적지 않다.

“요즘에는 안전장비 잘 착용하고, 자동차 뒤에서 신호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분들 보면 ‘참, 멋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젊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전의식이나 시민의식까지 느껴져서 참 좋더라고요.”

모터사이클 선수로서, 또 후배들을 이끄는 조력자로서,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다. 그에게는 삶과도 같은 모터사이클의 매력을 많은 사람이 알아주는 것.

“이륜차 운전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운전자들이 보호장비도 잘 착용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며 행복하고 긍정적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위험하다’며 만류하는 사람도 적어지지 않을까요? 안전하게만 탄다면 이륜차는 일상의 활력소로서 좋은 도구이자 친구로 인식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 바다와 함께 살아요, 반려해변 반려해변 입양제도에 대해 아시나요?

작년 가을 퇴근길, 무심코 틀어놓았던 라디오에서 나온 어느 청취자의 사연이 마음에 딱 꽂힌 일이 있었다. 회사에서 반려해변을 입양하여 쓰레기를 수거하였다며, 뿌듯한 기색을 감출 수 없었던 그 사연은 내 마음을 반짝이게 했다.

글. 박꽃처럼새하얀 과장(대전·세종·충남지부 안전지원부)



다음 날 아침 동료들에게 반려해변 프로그램에 관해 이야기했다. “반려동물은 들어봤는데, 반려해변?” 모두가 처음 들어본 제도였지만 다들 관심이 가득했다. ‘반려해변’은 1986년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대응 수단으로 미국 텍사스에서 개발한 해변 입양제도를 벤치마킹해 국내에 적합한 방식으로 재해석한 프로그램이다. 행정기관만의 힘으로 모두 책임지기 힘든 광범위한 해변 쓰레기 관리의 어려움을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보완하고, 특히 개인 또는 단체가 특정 해변을 입양하여 내 가족처럼 여기고 책임감 있게 보호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원하는 해변을 지정해 입양이 승인되면 연 3회 환경 정화 활동, 연 1회 캠페인을 실시하면 된다. 입양 기간은 2년이며, 활동 사항이 양호할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2023년 초, 우리는 작년부터 생각해 온 반려해변 입양을 실행하기로 했다.

해양환경공단은 참여자의 활동 전반을 보조해주는 코디네이터(이하 ‘코디’)를 연결해주었다. 코디는 해변 입양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고, 우리 지역과 가까운 서해안에 있는 해변 여덟 군데를 추천받았다. 접근성(거리, 시간), 타 기관 입양 여부 등을 고려해 네 곳을 방문했는데, 같은 서해인데도 관리 정도가 천차만별이었다. 혹시나 모를 안전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한 위치인지, 해양쓰레기가 많은지 등을 중점으로 판단했을 때 가장 적합한 곳은 충남 보령시에 있는 용두해변이었다. 보령시,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 2023년 5월 반려해변 입양증서를 받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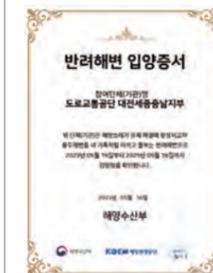
입양 후 두 번의 해양 환경 정화 활동을 시행했고, 총 28명이 참여해 1차 171.92kg, 2차 219.22kg, 총 391.14kg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스티로폼, 플라스틱, 깨진 유리 조각, 폐그물, 부표, 낚시 미끼 등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가 나왔고 이 중에는 국내 제품뿐만 아니라 한자가 쓰여 있는 제품도 꽤 있었다. 코디의 설명을 들어보니 실제로 중국에서부터 떠밀려온 쓰레기도 매우 많다고 했다. 쓰레기를 줍다가 죽은 물고기도 굉장히 많이 발견됐는데 사실은 죽은 물고기 아니라 낚시를 위한 미끼였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다.

북태평양 바다에는 대한민국 면적의 약 16배에 이르는 쓰레기 섬이 있다. 바닷물이 정체돼 모이는 부분에 해류를 타고 온 쓰레기들이 이론 섬으로 1997년 발견됐다. 상상도 못 할 정도의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고 있고 해양 생태계가 붕괴하고 있다고 한다.

반려해변 입양만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해양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인식을 주변에 확산시킨다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반려해변 제도란?



반려해변 제도는 ‘해변을 반려동물 보살피듯 소중하게 관리한다’는 의미로 1986년 미국 텍사스에서 시작, 우리나라는 2021년 제주를 시범으로 확대·시행 중이다. 현재 57개 해변, 73개 기관에서 반려해변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입양 희망 기관이나 단체는 ‘바다가꾸기(caresea.or.kr)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N209로 사용 중인 A16 로테르담의 첫 구간 © a16rotterdam

## 유럽 최초, 친환경 고속도로 탄생 네덜란드 로테르담 A16

도로 건설 중 박쥐의 집을 새로 만들어 주고, 도로에 사용되는 전기는 모두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도로. 자연은 최대한 보존하며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디지털 트윈으로 지속적인 관리까지 가능한 도로. 네덜란드에서 공사 중인 지속가능한 고속도로 A16은 차세대 고속도로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글. 차은서  
출처. 네덜란드 수자원공사(Rijkswaterstaat),  
A16프로젝트 공식 홈페이지(www.a16rotterdam.nl)



공사 중인 도로 © John laing

###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고속도로 건설 로테르담 A16 고속도로

네덜란드의 건축 수도로 불리는 로테르담에 A16 고속도로가 건설 중이다. A13과 A20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11km 구간의 이 도로는 유럽의 첫 번째 '지속 가능한 도로'로 주목받고 있다.

A16 고속도로 건설의 가장 첫 번째 목표는 '고속도로를 눈에 띄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고속도로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먼저, 주변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것, 그리고 차가 다니는 모습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 A16 고속도로는 눈에 띄지 않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방법으로 확장 터널을 설계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 고속도로 조감도 © Rijkswaterstaat





1 25 Nieuwe N209-A16 © a16rotterdam  
 1 40 Nieuwe N209-A16 © a16rotterdam

### 탄소배출량을 최소화 하는 방법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태양광 에너지

A16 고속도로는 지속 가능한 고속도로라는 설계 목표처럼, 탄소배출량 저감에도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그중 도로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조명에 특히 집중한다. 자연 빛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LED 조명이 켜지도록 설계했으며, 터널 벽과 차선은 주변 조도를 높이는 반사 표면으로 코팅했다.

LED 조명은 사전에 디지털 테스트를 통해 준비한 뒤 설치 뒤에는 육안으로 미세하게 조정해 에너지가 과소비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자연광의 정도에 따라 조명 밝기가 조정되기 때문에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30%나 절감할 수 있다. 비상 전환나 주변 설비 등 터널 시스템에서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직류 전압을 사용한다. 이에 필요한 모든 전력은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설치된 2만㎡ 면적의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된 태양광 에너지로 충당한다.

라게 베르제 보스 휴양지부터 로테강 하부를 지나는 확장 터널은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주변 휴양지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관광지로의 접근성까지 높였다. 또한 과거 방치되었던 유휴 공간에는 자전거 도로, 주행로, 등산로 등을 함께 건설하는 중이다.

이뿐만 아니다. 확장 터널에는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시공 기술이 포함된다. 현재 건설이 한창 진행 중인 지역은 박쥐의 자연 서식지로 알려져 있는데, 도로 건설로 손실된 수목 대신 박쥐가 숨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특수 구조물을 세웠다. 또한 표면에는 소음을 감소시키는 특수 아스팔트로 덮고, 인근 지역에 소음 방지벽과 흙으로 된 제방을 설치해 도로 소음을 해결했다.

한편, 고가도로는 현장에서 바로 건설하는 것이 아닌 사전 제작한 도로를 현장에서 재조립하는 탈현장건설 공법을 채택했다. 오랜 기간 소음과 분진을 유발하는 현장 건설에 비해 주변 환경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A20에서 작업 중인 인부들 © a16rotterdam



1 A13RHK A20 인근 도로의 교통량 © a16rotterdam



1 A13과 A16을 연결하는 아치(제스티엔호벤 교차로) 작업 © a16rotterdam  
 1 A16 터널조감도 © a16rotterdam

### 교통 혼잡 해소와 관리를 동시에 도로 위 4차 산업혁명

A16 고속도로 건설의 모든 과정은 건설정보모델링(BIM)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관리된다. 건설정보모델링은 3차원 정보 모델을 기반으로 건축물의 설계부터 시공, 이후 관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통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기술이다. 건축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공 후에도 섬세한 관리가 가능하다.

A16 고속도로는 이 건설정보모델링을 활용해 건설 구조물은 물론 터널 내에 설치된 모든 카메라, 비상전환 위치 및 조명을 점검할 수 있다. 또한 연기나 교통 체증 등을 시뮬레이션으로 대비한다. '재난 모드'를 활성화해 제어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며 도로교통에 미치는 영향까지 사

전에 산출할 수도 있다. 내부 조명을 관리하는 기능도 이 건설정보모델링이 담당한다.

건설정보모델링이 도로의 설비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면, 교통흐름을 관리하는 데는 디지털 트윈이 사용된다. 가상의 공간에 A16 고속도로와 동일한 3D 모델을 구축하고 실제 도로 정보를 입력해 전반적인 교통상황을 추적·관리하는 방식이다. 이전에는 도로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디지털 트윈을 이용하면 원격으로 상황을 확인하고 테스트, 조정이 가능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자연을 최대한 해치지 않는 고속도로를 설비 중인 네덜란드 환경과 교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기술 발전의 좋은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 타임슬립 체코 자동차 여행 시간을 달리다



체코에서는 누구나 시간 여행자가 된다. 타임슬립 영화 속 주인공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과거와 현재를 넘나든다. 오랜 역사를 품고 있는 중세 시대 유적지부터 최신유행을 이끄는 힙하고 트렌디한 장소까지. 잔잔한 풍경이 이어지다가 이내 알록달록한 풍경이 나타나 여행자의 발걸음을 멈춰 세운다.

글·사진. 박은하(여행작가)

## 낭만과 추억의 체코 로드트립

유럽 중부에 있는 체코 공화국은 독일,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폴란드와 닿아 있다. 체코의 면적은 대한민국의 3/4 정도. 로드트립을 즐기기에 적당한 크기다. 정확히는 78,867km<sup>2</sup>. 대한민국 전체 면적에서 전라도의 면적을 뺀 크기다.

체코에서 렌터카 운전은 어렵지 않다. 도로 상태도 양호하고, 운전 방향도 한국과 같다. 다만 체코 언어가 생소하게 느껴지니 주요 지명 정도는 미리 숙지하고 출발하는 게 좋겠다. 운전자는 신분증과 국제운전면허증, 한국 운전면허증을 모두 소지해야 한다. 국제운전면허증은 한국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체코 입국 전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미리 준비할 것. 참고로 체코는 자동차를 타고 주변 국가의 국경을 넘나들며 여행할 수 있는데 차량 앞 유리에 통행료(비네트) 스티커를 미리 부착해야 한다.

유럽 여행은 대학생 시절 배낭여행 이후 처음이다. 주머니 가벼웠던 학창 시절에 다녀온 유럽 여행은 생고생 투어로 기억된다. 숙박비를 아끼기 위해 주로 밤 기차를 타고 다녔고, 식사는 마트에서 빵과 과일을 사 먹거나 배낭에서 컵라면을 꺼내먹었다. 이번 여행의 목적은 점을 찍는 여행이 아닌 선을 긋는 체코 로드트립이다. 주머니 사정도 그때보단 나아졌으니 밤 기차 대신 렌터카를 타고 다니며 미식도 즐겨볼 계획이다. 체코의 수도 프라하를 비롯해 힙스터의 성지 브르노, 중세도시 체스키 크룸로프에 다녀왔다.



세계 한 바퀴는 올 해 동안  
코로나19 이후  
외국 도로 여행 정보를  
전달합니다.

- 1+2월호: 광
- 3+4월호: 나트랑&달랏
- 5+6월호: 포르투갈
- 7+8월호: 사이판
- 9+10월호: 체코
- 11+12월호: 미국 서부





□ 프라하 구시가지

을 지나 구시가지 광장에 들어서면 프라하 구시청사 벽에 있는 천문 시계탑이 눈길을 끈다. 정시마다 시계에서 작은 창이 열리면 서 목각 인형이 나와 짧은 퍼포먼스를 펼친다. 1분도 채 안 될 정도로 짧은 시간이지만 600년 전에 만들어진 시계를 보기 위해 매일 수많은 관광객이 구시청사 앞에 모여든다. 천문 시계탑을 구경하고 광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고딕양식을 비롯해 르네상스, 로코코, 바로크 등 여러 시대의 건물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오랜 시간 켜켜이 쌓인 시간의 지층처럼 느껴졌다. 버블 아티스트, 재즈음악가 등 21세기를 사는 예술가들이 구시가 광장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바츨라프 광장을 중심으로 신시가지가 펼쳐진다. 지금의 신시가지는 중세 시대 때 말 시장이 열렸던 곳이다. 현재는 20세기에 지은 건물이 남아있다. 국립박물관 앞으로 길이 750m, 폭 60m의 쪽 뺨은 대로가 이어지는데 광장 중앙에 보행자 도로가 있고 양옆으로 차도가 나 있는 모습이 마치 한국의 광화문 광장과 비슷하다. 광장 주변에는 쇼핑몰, 호텔, 은행, 카페, 레스토랑 등이 있어 활기찬 모습이다.

프라하에서 가장 높은 언덕에 프라하성 지구가 있다. 왕궁, 성당, 궁전, 가든 등을 포함해 유럽에서 가장 큰 성채 단지로 손꼽힌다. 스트라호프 수도원 남쪽 언덕에 있는 페트리진 공원은 프라하의 전경을 감상하기 좋은 전망 포인트다.

프라하에는 800여 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노천시장이 있다. 1232년부터 시작해 오늘날까지 프라하 인기 시장으로 손꼽히는 하벨 시장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과일과 채소는 물론이고, 체코 기념품 등을 판매한다. 탐스러운 과일이 담긴 바구니, 마디마디 움직이는 마리오네트 인형, 컬러풀한 맥주잔 등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 체코 제2의 도시 브르노

프라하에서 브르노까지 거리는 약 204km. 차량정체가 없다면 차를 타고 2시간 남짓 걸린다. 유럽에서 삶의 질이 높은 도시로 손꼽히는 브르노 역시 과거와 현대를 오가며 시간여행을 즐길 수 있다.

브르노 여행의 시작점은 구시가지 중심에 있는 자유 광장이다. 13세기부터 오늘날까지 광장에서 시장이 열리는데 옛날부터 양배추를 파는 노점이 많아 '양배추 시장'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채소 가게 외에 과일 가게, 꽃가게, 빵 가게 등이 있다. 광장에 우뚝 서 있는 파르나스 분수대도 볼거리다. 완두콩 실험으로 유전자 법칙을 밝혀낸 멘델이 자주 찾던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다. 분수대 주변에는 귀여운 아이스크림 트럭이 자리를 잡았다. 양배추 광장의 명물, 젤라토를 입에 물고 달콤한 여유를 즐겨본다. 자유 광장 주변에는 트렌디한 레스토랑과 개성 넘치는 바가 많다. 그도 그럴 것이 브루노는 대학교가 많은 도시라 그렇지 어딜

가도 젊고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진다. 브르노 구시가지에는 재밌는 볼거리가 많다. 브르노 구시청사 입구에는 악어처럼 생긴 조형물이 천장에 달려 있다. '브르노 드래곤'이라 불리는 녀석인데 상상 속에 있는 용을 만든 것이라 한다. 이름은 용이지만 막상 보면 귀여운 악어를 연상케 하는 아기자기한 모습이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시청사 탑 출입문 위에 붙어 있는 조각 장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언가가 어색하다. 끝부분이 구부러져 있는 모습이 눈에 띄는데 여기에도 웃픈(?) 사연이 전해진다. 장식을 만든 조각가이자 건축가인 안톤 필그람은 브르노시로부터 제때 돈을 받지 못해 화를 참지 못하고, 장식을 구부러 놓았다고 한다. 구시청사는 현재 관광안내소이자 전망대로 쓰인다. 전망대에 가려면 수많은 계단을 올라야 해서 허벅지가 쫄깃해질 지경. 하지만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풍경만큼은 예술이다. 브루노의 밤은 낮보다 활기차다. 맥주가 유명한 체코지만 브르노에서는 와인이 대세

### 체코의 수도 프라하

체코 하면 많은 사람이 가장 먼저 프라하를 떠올린다. 프라하는 체코의 수도이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2005년 드라마 <프라하의 연인>의 흥행으로 잘 알려졌다. 프라하는 화약탑을 중심으로 안쪽은 구시가, 바깥쪽은 신시가지로 나뉜다. 사실 프라하만 여행할 거라면 렌터카가 필요 없다. 프라하에서는 주요 관광지가 모여 있어 걸어 다니거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 다니는 것이 효율적이다.

화약탑에서 카를교까지 이어지는 프라하 구시가지는 오랜 역사를 품고 있다. 화약탑은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넘나드는 출입문이다. 중세 시대 도시를 둘러싼 성벽의 13개 탑문 중 현재까지 유일하게 남아있다. 18세기 프러시아 전쟁 당시 화약 저장소로 이용해 '화약탑'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탑 꼭대기 전망대에 오르면 프라하 구시가지 풍경이 한눈에 펼쳐진다. 붉은 지붕과 뾰족한 첨탑 등이 어우러진 풍경이 이색적이다. 화약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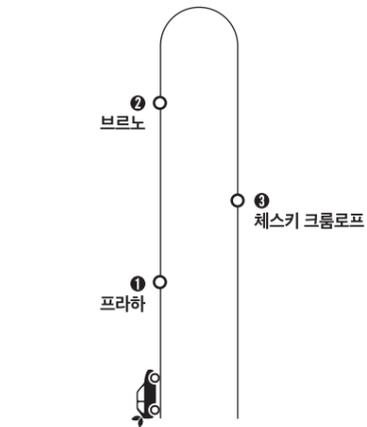


□ 프라하 구시가 광장



□ 프라하 하벨시장

□ 브르노 양배추광장



### 코로나19 이후, 체코 입국 정보

체코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대응 관련 조치를 해제했다. 백신접종은 필수가 아니며 격리도 하지 않는다. 무비자의 경우 최대 90일까지 체류 가능하며 코로나19 관련 아무 제약 없이 입출국 할 수 있다.



☐ 브르노 구시청사 전망대 조형물 ☐ 브루노 바 풍경



다. 실제로 브르노가 속한 모라비아지역은 체코 와인 생산량의 96%를 차지한다. 젊은 감각으로 꾸며진 바와 식당을 탐방해 보는 것도 브르노를 즐기는 새로운 여행 방법이다. 어딜 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대기 줄이 긴 곳이 소위 말하는 핫플이다. 오전에는 카페, 낮에는 식당, 밤에는 분위기 좋은 바로 변신하는 곳도 있다.

### 중세도시 체스키 크롬로프

프라하와 함께 체코의 대표적인 여행지로 손꼽히는 체스키 크롬로프는 체코 동남부에 있다. 작은 마을이지만 풍성한 볼거리와 이야깃거리가 함께해 1년 내내 관광객이 많다. 브르노에서 체스키 크롬로프까지는 차로 3시간 남짓, 프라하에서 체스키 크롬로프까지는 2시간 정도가 걸린다. 체스키 크롬로프는 중세 시대에 지어진 건물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마을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다. 구석구석 골목길을 걷다 보면 마치 중세 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난 듯하다. 체코에서 프라하 성 다

음으로 큰 성이 체스키 크롬로프에 있다. 성채는 S자 형태로 굽이쳐 흐르는 블타바 강을 끼고 가파른 언덕을 방어벽 삼아 지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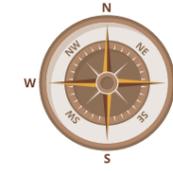
예로부터 체스키 크롬로프는 소금 생산지인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와 이어진 길목에 있어 산적이 많았다. 1200년대 중반 보헤미안 귀족 비테크 가문이 산적을 소탕하며 마을을 지키는 명목으로 세금을 받아 성을 쌓았다. 비테크 가문에 후손이 끊기자 친척인 로젠베르크 가문이 성을 물려받았고 기존의 성을 르네상스식으로 증축해 16세기에 완공했다. 웅장한 성채는 성과 광장, 성당 등으로 구성된다.

체스키 크롬로프의 전성기는 14~16세기다. 수공업과 상업이 번성했던 중세 시대 모습이 곳곳에 남아있다. 마을에는 18세기 이후에 지어진 건물이 거의 없으니 건물 하나하나가 다 박물관인 셈이다. 이발사의 다리를 건너면 스보르노스티 광장이 나온다. 호텔, 카페, 기념품 가게 등이 광장을 둘러싸고 있다. 길을 걷다 동화 속 주인공을 만

나도 하나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분위기다. 체스키 크롬로프에는 1560년대에 처음으로 양조장이 생겼다. 1660년대 에켄베르그가 양조장을 인수했고, 오늘날까지 직접 맥주를 만들며 전통을 이어 나가고 있다. 500ml 한 잔에 우리 돈 3,000원 남짓. 저렴한 가격으로 맛 좋은 맥주를 즐길 수 있으니 이 또한 체코 여행이 주는 행복이다. 체스키 크롬로프는 반나절 정도면 마을 한 바퀴를 돌아볼 수 있지만 하루 정도 머물며 천천히 골목 여행을 즐기기를 추천한다. 버스 시간에 쫓겨 후다닥 인증샷만 찍고 가는 여행보다는 오래 머물고 싶은 곳이 있다면 충분히 시간을 보낼 것. 이것이 렌터카 여행의 최대 장점일 테니 말이다.



☐ 체스키 크롬로프 성 ☐ 체스키 크롬로프 마을



### 프라하

체코의 수도 프라하는 중부 유럽의 정치, 문화, 경제의 중심지로 성장해 왔다. 로마네스크 시대에 세워져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를 거치며 풍부한 역사를 쌓아올린 보헤미아 왕국의 수도였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으며,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는 대표적인 도시다.



### 체스키 크롬로프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도시다. 남부 보헤미안 지역의 자유롭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고스란히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3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예전 모습을 그대로 간직해 역사적 가치가 뛰어나다. 주말이면 관광객이 휴식을 위해 찾는 곳이기도 하다.



### 브르노

프라하가 체코 서쪽 보헤미아 지역의 대표 도시라면, 브르노는 동쪽 모라비아 지역의 대표 도시다. 체코 사법부의 중심이자 고등교육의 핵심 도시로 유명하다. 슈필베르크 성곽과 요새, 성베드로 성당, 성바오로 성당 등 중세 시대 역사 유적과 첨단 연구소가 어우러져 있다.



### 좌회전할 땐 트램에 주의하세요



체코에서 좌회전은 대부분 비보호로 이뤄진다. 비보호 좌회전 방법은 국내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도로 중앙으로 다니는 트램을

유의해야 한다. 우회전 시에는 화살표 신호를 잘 확인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 도입된 우회전 신호등 이용방법과 마찬가지로 적신호 시에는 우회전할 수 없다.

### 귀중품은 가지고 다니세요

여행 중 귀중품은 반드시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이 안전하다. 차량 내 물건을 두어도 방심은 금물. 유리창을 깨고 절도하는 사건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꼭 자동차 안에 물건을 두어야 한다면 트렁크를 이용하자.

### 전조등 점등은 필수입니다

체코에서는 낮에도 전조등을 반드시 켜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렌터카 인수할 때는 전조등이 켜지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법의 시각 변화 반려동물이 교통사고를 당한다면?

소중한 반려동물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온다. 그때마다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볼 것이냐, '가족'으로 인정할 것이냐는  
논란이 뜨겁다. 반려 인구 1,500만 시대. 변화하는  
사회 인식 속에서 실제로 법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본다.

글. 이재형(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가  
직접 알려주는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 되는  
도로 상식



## #1 반려동물이 길가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사고로 인한 분쟁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란 모든 동물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친숙한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와 햄스터가 이에 해당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 제7호,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많은 사람이 반려동물을 단순한 동물이 아닌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와 관련해 민법 등 관련법 개정 및 제정

논의가 활발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본법인 민법에서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보험 실무에서는 '대물사고'로 취급합니다. 통상 물건에 대한 손해배상의 원칙은 수리가 가능할 때는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할 때는 훼손된 가액이나 교환가액이 손해가 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살아 있는 생명체로서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연히 손해배상에서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보험 실무에서는 통상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그 범위 내에서 치료비 등을 보상합니다. 하지만, 소송으로 이어졌을 경우에 최근 판례는 반려동물의 가치는 살아있는 생명체이며, 사람과의 유대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교환가치를 산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여겨 발생한 치료비 전액과 주인 등이 겪은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료를 지급하라는 추세입니다(서울동부지법 2011. 9. 21. 선고 2009나1558 판결, 대전지법 2022. 9. 8. 선고 2021나1150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손해액이 정해지면, 반려동물 관리상의 과실이 있는지를 살펴 이를 참작한 후 손해배상을 하는데, 자동차보험 실무에서는 치료비 등이 반려동물이 거래되는 가격을 초과할 경우에 그 가격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법이나 자동차보험 약관이 개정되지 않는 한 보상의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 #2

### 펫 택시 이용 중 교통사고를 당한다면 어떻게 처리될까요?

일반의 택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탑승하려는 사람에 대해서 승차 거부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비록 반려동물을 '전용 이동장'에 넣었을 때는 원칙상 승차 거부를 할 수 없지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례가 많기 때문에 반려동물 전용택시인 펫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펫 택시를 이용한다고 할지라도 현행법(민법 제98조)에서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실무에서는 반려동물이 거래되는 가격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송으로 이어지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발생한 치료비 전액과 주인 등이 겪은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현행 법상 반려동물은 사람처럼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반려동물 자체의 위자료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다만 이를 키우는 사람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만 인정됨).



최근, 반려동물과 관련해 많은 '펫 보험'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는데, 만일 '펫 택시 회사' 또는 '반려동물 주인' 등이 이러한 보험을 들었다면 이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보험금을 받겠지만, 이는 엄연히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펫 택시 이용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해 반려동물이 죽거나 다친다고 해도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는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118594 판결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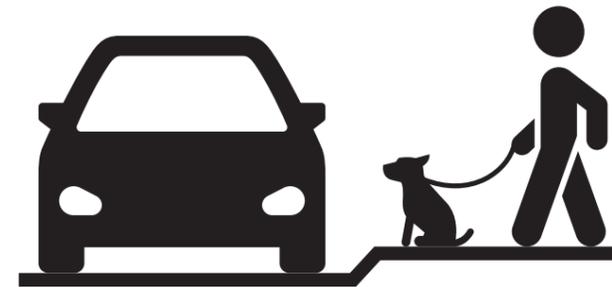
## #3

### 자동차 사고를 당했는데 차 안에 반려동물이 탑승 중이었다면, 반려동물도 보험처리 대상이 될까요?

자동차 사고를 당했을 때, 반려동물과 함께 탑승 중이었다면 반려동물은 법적으로 물건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는 '소지품'으로 취급됩니다. '소지품'이란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다니는 현금, 유가증권 등의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볼트, 너트 등으로 정착돼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조 제16호).

자동차보험 실무에서는 '소지품'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분실 또는 도난으로 발생한 때에는 보상하지 않지만(도덕적 위험의 문제 때문), 훼손되었을 때는 피해자 1인당 200만 원 한도에서 보상합니다(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8조).

물론 소송으로 이어지면 이러한 제한 없이 보상되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 금액대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0조).



평소 궁금했던 도로교통법규가 있다면 독자엽서에 적어 보내 주세요. 전문가가 직접 답변해 드립니다. 채택된 질문을 주신 독자 여러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지급합니다.

## #4

### 최근 반려동물을 물건이 아니라는 민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하는데,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교통사고 시에도 보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2023년 7월 7일에 민법에 '제98조의 2'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전에도 계속 이러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동조 제1항에 '동물은 물건이 아닌 감각이 있는 생명체이다.'라고 정하고, 제2항에 '동물에 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서 동물은 일반의 물건과는 분명히 다른 생명체라는 점을 정하고 있지만,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함으로써 동물에게 사람과 같은 권리능력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할지라도 동물 그 자체에 사람과 같이 '위자료'를 귀속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생명체라는 것은 최근 판례에서 보듯이 단순히 거래되는 가격으로 그 교환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대전지법 2022. 9. 8. 선고 2021나150 판결), 현재 단순히 반려동물이 거래되는 가격의 범위 내에서만 치료비 등을 보상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실무는 개선될 여지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밤에는 왜 과속운전을 하기 쉬울까?

## 야간 운전 중 과속하는 심리

밤과 낮 중 교통사고의 위험이 클 때는 언제일까요.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실제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낮에 더 많지만, 치사율은 밤에 더 높아 야간에 교통사고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과속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심리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글. 임은주(임은주심리상담센터장)

## 어두울 땐 과속에 대한 감각이 무뎠다?

### 터널 시야 현상

속도란 시간당 움직이는 거리를 뜻합니다. 같은 시간에 얼마나 움직였는지, 반대로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를 인식하는 것을 '속도감'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뇌는 타인과의 거리를 통해 자신의 위치와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도로 위를 달릴 때 계기판으로 속도를 확인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차가 다른 차와 비슷한 속도로 달리고 있는지 교통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지요. 주변이 어둡고 변화가 적은 야간에는 자신의 차가 달리는 속도를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속도감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과속하기 쉽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감지하는 능력은 인간만이 지닌 고차원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야간에는 주변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변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못하고 시야가 좁아지는 \*터널 시야 현상이 나타납니다. 외부 세계를 통해 자기 모습과 위치를 파악하며 고도의 문명화를 이룬 인간이 갇힌 듯한 어두운 시야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렵게 되는 거죠. 야간 운전을 할 때는 낮에 운전할 때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속도 계기판을 더 자주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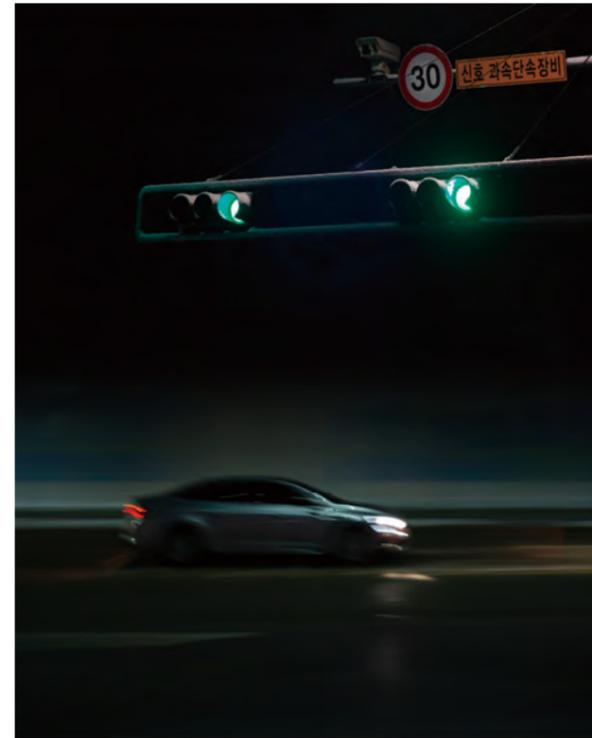
## 남이 보지 못할 때 드러나는 두 개의 마음

### 양심과 수치심

자신이 드러나는 낮에는 타인을 의식하기 쉽습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죄 자체를 꺼리는 양심보다 죄를 들키는 것에 대한 수치심이 더 깊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길 가다 넘어져도 다친 아픔보다 수치심을 더 크게 느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심리는 양심보다 생존이 우선되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무의식에 뿌리 깊은 '안전하지 않다'라는 불안감이 있으면 늘 생존에 위협을 느끼는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면에 불안감이 큰 경우에는 양심을 따라 살아가기 어려운 거죠.

남과 비교하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심리는 인간 사회를 구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인간만의 고유하고도 고차원의 기능이지요. 얼굴 쪽에 집중된 12쌍의 뇌신경은 인간이 시선과 표정을 통해 타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진화했습니다. 그러나 이면에 지나치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경향이 오히려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거나 다양한 정신적 신체적 질병을 만드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타인의 시선이 있을 때만 양심에 따르는 심리는 누구나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 우리는 부모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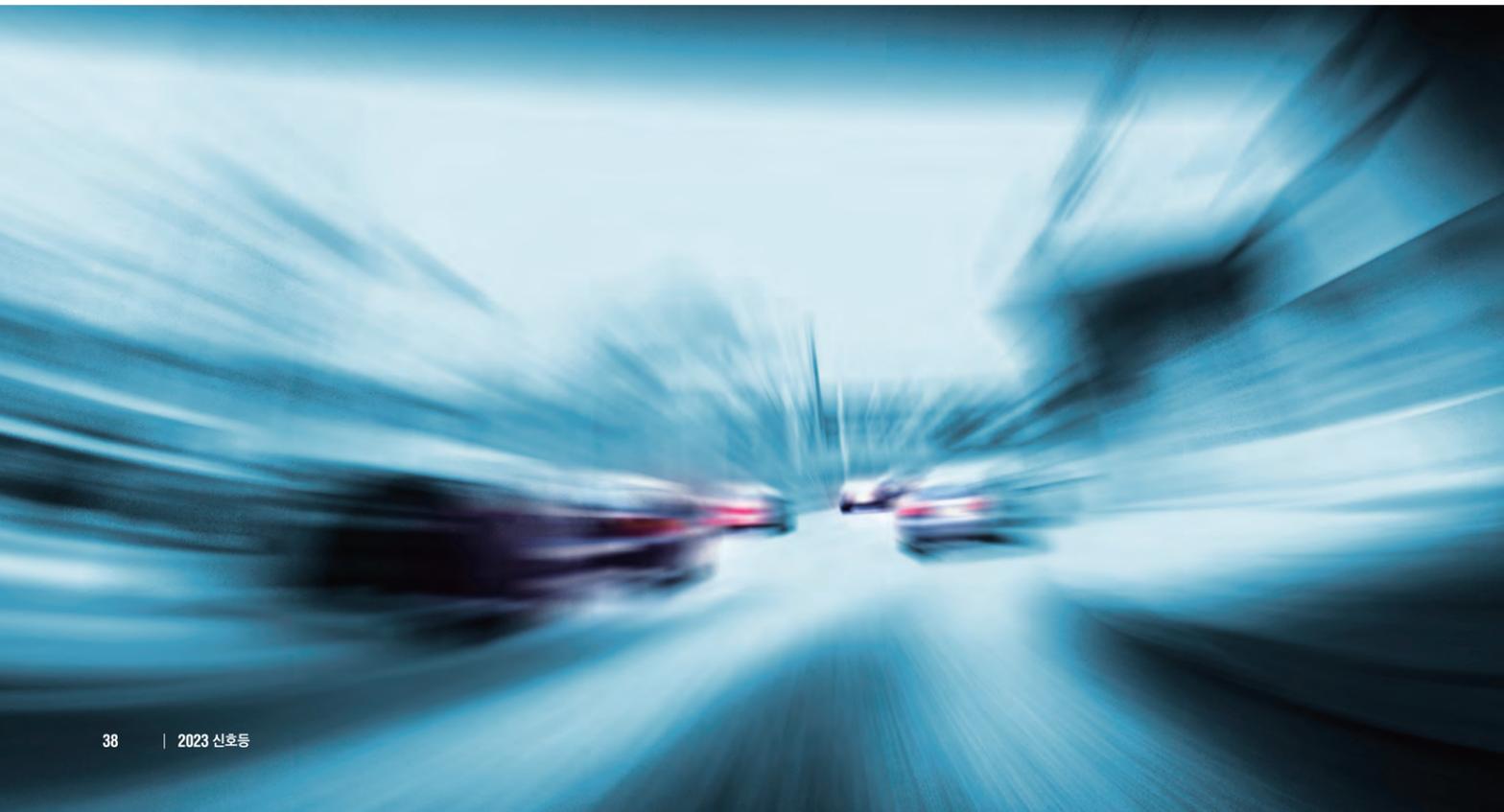
## 타인의 시선이 아닌 양심을 찾는 법

### 불안감에서의 해방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타인의 시선 없이 살아가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보호'지만 반대로는 '감시'가 되기도 합니다. 보호와 감시는 다른 느낌이지만 경계가 모호합니다.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클수록 타인의 시선을 감시로 느낄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야간에 과속하는 심리는 평소 느끼는 불안감과 관계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예시와 같이, 타인의 시선이 줄어드는 야간에 규칙을 어기는 것으로 스스로를 보상하는 보상 심리죠. 인간은 어떤 감정이든 지나치게 쌓이면 해소하려는 기제가 작동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심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내면의 불안에서 해방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보호받았던 경험이 부족해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타인의 시선이 나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수호천사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마음이 따뜻하게 채워질 때 두려운 감정이 더 이상 공포가 아닌 나를 지키는 환한 신호등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황을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안정감은 근본적인 신뢰로 내면에 자리 잡기 때문에 성장 후 부모가 지켜보지 않아도 안정감을 느끼며 스스로 양심을 지키며 살게 됩니다. 누군가 사랑의 눈으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한다는 느낌은 생각만 해도 편안하죠.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똑같이 아이를 지켜보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켜보기를 귀찮아하거나, 혹은 아이가 잘못될까 봐 불안하고 두려운 눈으로 감시하는 부모라면 그 안에서 아이가 자유와 편안함을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봐주는 시선이 아예 없거나 감시하는 시선만 있었던 아이는 성장하여 모든 시선이 나의 잘못을 감시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늘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들킬까 봐 불안하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이 없을 때는 상대적으로 규칙을 어겨 마음의 보상을 받고자 하는 심리가 자리 잡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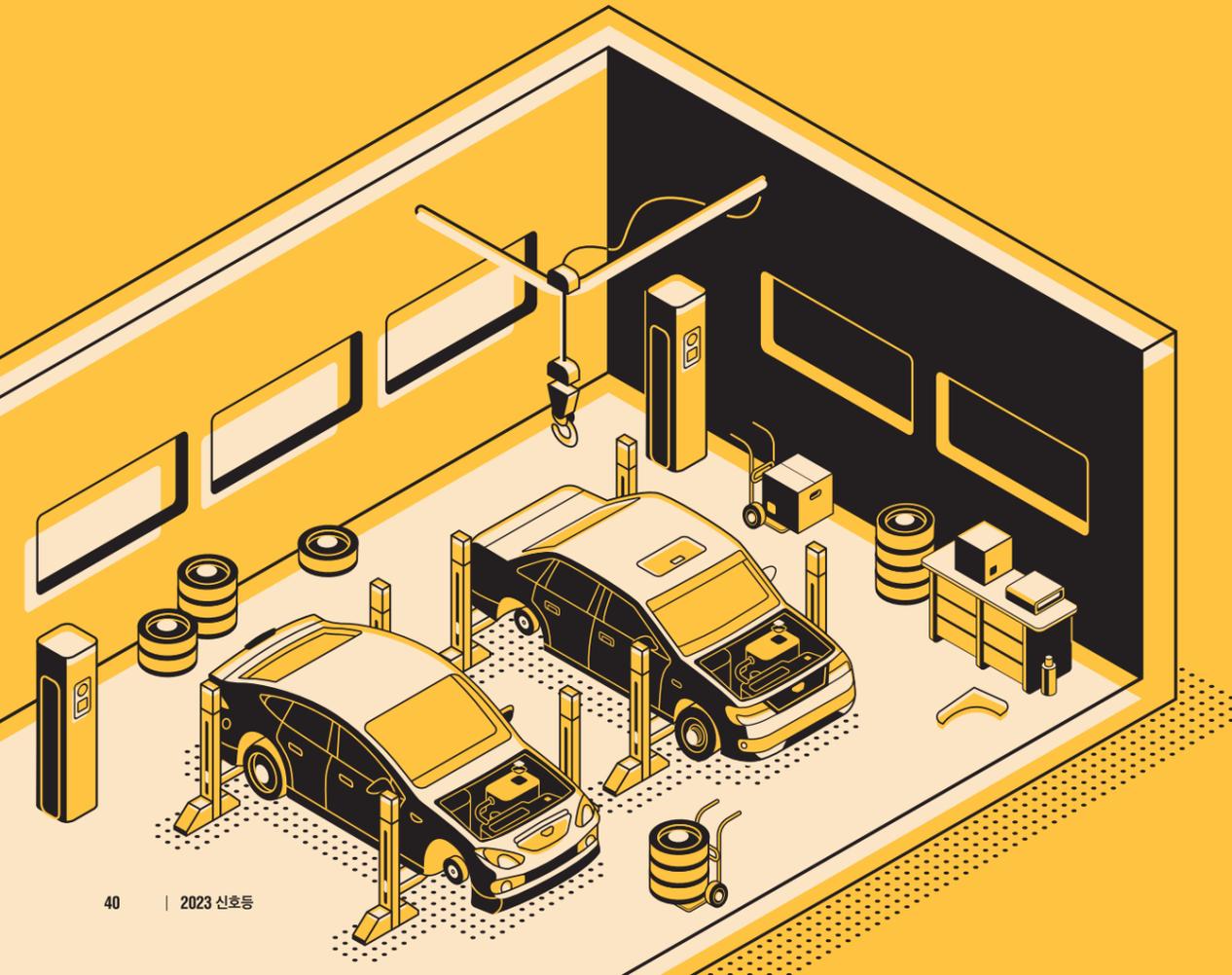
\* 터널 시야 현상: 특정한 것만을 바라보고 나머지는 바라보지 못함으로써 주변의 대부분을 놓쳐버리는 현상.



## 내 차가 빨리 고장 나는 이유 자동차 수명 줄이는 운전 습관 5가지

자동차는 소모품이다. 부품이 마모되면 적절히 관리해야 큰 고장도 막을 수 있고 원활하고 안전한 운전 생활이 가능하다. 부품 교체 시기는 제조사나 항목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유독 내 차는 더 빨리 교체하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혹시 내 운전 습관이 잘못된 것일까? 자동차 부품을 더 빨리 상하게 하고 나아가 자동차 수명까지 단축하는 운전 습관을 알아보자.

글. 편집실  
감수. 김필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습관 1



#### 연료 경고등이 켜진 뒤에 주유하기

도로를 달리다 보면 땡, 땡, 하고 울리는 소리가 있다. 바로 연료 경고등이다. 그때부터 급하게 가까운 주유소를 찾아 방문하는 일이 잦다면 주목하자. 자동차 연료가 바닥난 상태에서 주행하면 자동차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을 때 불순물이 연료통에 축적되는데, 이 때문에 바닥에 퇴적물이 형성된다. 연료가 바닥나면 이 퇴적물들이 연료펌프나 필터에 들어가 내부 손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습관 2



#### 멈춘 상태에서 운전대 돌리기

자동차가 출발하기 전에 운전대를 돌리는 것도 자동차의 수명을 줄이는 습관 중 하나다. 정차 상태에서 타이어가 움직이면 타이어가 마모될 뿐만 아니라 조향장치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차한 상태에서 불필요한 움직임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 습관 3



#### 잘못된 주차브레이크 사용

주차한 뒤에 주차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적지 않다. 주차 기어(P)에 놓으면 타이어가 고정돼 움직이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주차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으면 기어박스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또한 고정되는 힘이 약해 경사로부터 특히 위험하다. 주차 시에는 반드시 주차브레이크를 사용하고, 가장 마지막에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전차식 주차브레이크가 장착된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 습관 4



#### 브레이크를 너무 자주 밟는 습관

운전 중에 브레이크를 너무 자주 밟는다면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가 빠르게 마모될 수 있다. 특히 내리막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살짝 밟은 상태로 운전하거나 짧게 여러 번 밟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브레이크 페달을 사용하기보다 낮은 기어로 바꿔 엔진 브레이크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게 좋다. 무엇보다 평소 브레이크를 자주 밟는 일이 없도록 적정속도로 안전운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습관 5



#### 급출발, 급정거

정차된 상태에서 급하게 출발하거나 주행 중 급하게 정거하는 습관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에도 해롭다. 순간적으로 가속을 하게 되면 연료 소모량이 증가하고 자동차에도 부담을 주기 마련이다. 급정거 또한 제동장치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좋지 않다.



### 잠깐, 자동차 예열 논쟁은 그만!



#### 올바른 자동차 예열 방법

자동차 예열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자동차를 예열하는 것이 연비와 엔진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고, 환경오염을 초래한다며 예열을 금지하자는 의견도 있다. 진실은 무엇일까?

자동차 예열이란, 멈춰있던 내부 오일이 자동차를 순환해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때 필요한 시간은 1분 정도면 충분하다. 자동차 시동을 켜면 RPM이 높아지는데, 이 RPM이 다시 낮아지는 시간이다. 이후 주행 초반 3-5분 동안 천천히 주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동차를 예열할 수 있다.

필요한 시간을 넘어서 공회전을 하는 것은 오히려 엔진에 부담을 주는 행동이다. 실제로 자동차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차량 매뉴얼에도 '엔진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공회전을 하지 마십시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제조사별로 다를 수 있음).

#### 공회전이란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한 상태에서 원동기를 가동하는 것을 말한다.

#### 공회전의 제한

각 지자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공회전을 제한하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관할구역 전역에서 공회전을 제한하고 있으며 2분을 초과하며 공회전을 하면 안 된다. 단, 대기온도가 영상 25°C 이상이거나 영상 5°C 미만인 경우에 한해 제한 시간을 5분 이내로 한다. (대기온도 0°C 이하, 영상 30°C 이상일 때는 적용 제외)



## 신호위반 교통사고 블랙박스 분석 잠깐 '딴짓'하면 사람이 다칩니다

모든 운전자는 교통 신호에 따라 운전해야 한다. 도로 위에서 안전하게 통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다. 그럼에도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적지 않게 발생한다. 영상분석 중 가장 많은 신호위반 교통사고의 원인은 바로 '딴짓'이다.

글. 황민구(법영상분석연구소장)  
영상 출처. 인터넷 커뮤니티



Point. 01

정지선을 넘어 달려오는  
직진 차량

Point. 02

정상적으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시작한 블랙박스 차량



황민구 법영상분석연구소장

법 영상 분석을 위한 수십 편의 논문과 특허를 갖고 있으며, 법원 감정 및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다양한 사연을 가진 의뢰인을 만나서 영상 분석을 통해 억울한 이들의 진실이 밝혀지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다.

### 사 건 파 일

- 발생 일 2022년 6월 30일
- 발생위치 천안 시내 삼거리 교차로
- 사고유형 추돌사고
- 사고원인 신호위반



사고 블랙박스 영상  
전체 보기

해당 영상을 확인한 결과, 블랙박스 차량은 정상적인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고 있으며, 좌회전 과정 7초 후 신호를 위반한 승용차가 차량의 측면을 추돌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첫째, 블랙박스 차량은 정상적인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장착 차량은 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시도했습니다. 이때 오른쪽 횡단보도에도 보행신호가 켜져 직진은 불가능한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직진 차량이 계속 주행 중입니다.**

흰색 차량은 그대로 정지선을 넘어 주행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줄이려는 흔적이 없던 것으로 보아 해당 차량은 신호를 확인하지 않고 주행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결국 신호를 위반한 승용차가 블랙박스 차량에 추돌합니다.**

신호위반을 한 흰색 차량이 좌회전을 시도하는 블랙박스 장착 차량의 옆면에 그대로 추돌합니다. 명백한 신호위반 상황이므로 흰색 차량은 가해 차량이 됩니다.



위 영상에서도 알 수 있는 사고 원인이 신호 위반인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가해 차량이 '왜 신호 위반을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수많은 교통사고 영상과 사고 자료 및 판결문을 토대로 추정되는 신호 위반의 사례는 다섯 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식별되는 신호 위반 원인을 토대로 대처 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신호 위반 원인 하나, 주행 중 딴짓! 운전에만 집중하세요**

주행 중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하지 않고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 조수석에 다른 물건을 찾는 경우, 영상을 틀어 놓고 시청하며 운전하는 경우 등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할 수 있는 행동을 할 경우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충격적이지만 실제 다른 사건에서 운전자가 휴대폰 거치대에 휴대폰을 올려두고 고스톱을 하며 주행하는 장면을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전방을 기록하는 블랙박스 영상에는 전면 유리에 핸드폰 화면이 투영되었고 이를 화질 개선한 결과, 운전자가 화투패를 터치하는 장면이 출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큰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신호 위반 원인 둘, 음주운전! 한 잔도 안 됩니다.**

음주운전 시 전방 신호등 색상과 지시 표시를 제대로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인지반응 속도가 상당히 떨어져 신호에 대한 반응이 늦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신호 위반으로 대형 사고를 발생시킵니다.



**신호 위반 원인 셋, 졸음운전! 졸리면 쉬어 가세요.**

운전자가 운전 중 잠을 참지 못해 졸음운전을 할 경우, 전방 주시를 하지 않아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발생시킨 유형도 다수 확인됩니다.

**신호 위반 원인 넷, 심신미약! 아플 땐 운전하지 마세요.**

운전 중 약물(잠을 유발하는 약)에 의해 정신이 혼미해져 신호를 인지하지 못해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종종 확인됩니다. 몸이 아프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아 운전 집중할 수 없는 상태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잠깐의 딴짓이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운전자는 운전만 해야 합니다. 전방 주시를 게을리할 수 있는 요소를 차단해야 합니다. 잠깐 하는 것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법영상전문가를 찾아온 많은 신호 위반 가해자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합니다. "잠깐 한 건데, 그때 그걸 안 했어야 했는데, 내가 미쳤지 그걸 왜 해가지고~" 신호 위반은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본 사고처럼 차량 파손과 인적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전, 블랙박스 분석!**

휴대전화로 우측 QR코드를 찍어 영상을 시청한 뒤, 사고의 원인을 찾아보세요.

- ① 운전 미숙    ② 불법 유턴    ③ 무리한 차로 변경    ④ 과속

\* 정답은 독자엽서에 체크해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히신 독자 여러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 헛갈리거나 분석이 필요한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cje@kyungsungmedia.com으로 제보해 주세요.



독자참여  
QUIZ

## 필수일까, 불법일까 ‘초보운전자 스티커’를 둘러싼 진실

‘초보운전자 스티커’가 불법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초보 주행의 미숙함에 대한 양해와 배려를 구하기 위해 부착하는 스티커가 법에 어긋난다고? 사실 여부와 소문이 퍼지게 된 이유를 알아보고, 운전 경력과 노련함을 떠나 모두가 함께하는 도로 위에서 필요한 운전자의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본다.

글: 구현경



□ 영국 초보운전자 스티커

### 배려와 양보는 내가 먼저

운전을 시작할 때 한 번쯤 초보운전자 스티커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고려해 보게 된다. 베테랑 운전자가 이끄는 차로 가득한 도로에 나서기 전, 미숙한 운전 솜씨에 기부터 죽고 혹이나 모를 안전사고가 걱정되기 때문. ‘초보운전자 스티커’는 아직 운전 서툰 주행자의 상태를 알리고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인터넷에선 얼마간 초보운전자 스티커가 불법이라는 소문이 떠돌았다. 사실부터 말하자면 초보운전자 스티커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초보운전자들 사이에서 지나치게 장난스럽거나 무례한 내용의 스티커 문구 사용이 유행처럼 번졌고, 이를 지켜보던 다른 운전자들의 불쾌감이 고조되며 발생한 논쟁에서 비롯된 소문일 뿐. ‘초보운전자이니 알아서 피하세요’나, ‘無개념 운전자’와 같은 문구에서 미숙한 운전 솜씨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배려를 부탁하는 자세를 느끼기는 힘들다.

초보운전자 스티커 불법 소문의 근원인 도로교통법 제42조 1항에 ‘혐오감을 주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있기는 하다. 불쾌감을 심어주는 초보운전자 스티커로 인해 과태료를 냈다는 소문은 종종 찾아볼 수 있지만, 실제 사례는 확인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혐오감을 느끼는 기준은 사람마다 달라서 초보운전자 스티커에 적용하기 애매하다는 점이 이유일 수 있다. 초보운전자 스티커 부착은 1995년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8조의 3에 따라 의무사항이었으나, 1999년 관련 법이 폐지돼 현재는 자율에 맡기는 중이다.

### 법보다 중요한 운전 매너

해외의 경우 규격화한 초보운전자 마크 부착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나라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옆 나라 일본. 1972년 법안을 도입한 일본은 면허 취득 후 1년 동안 운전자에게 ‘와카바(초심자) 마크’라는 초보운전자 마크를 차량의 전면과 후면의 지정된 위치에 붙이게

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을 부과한다. 면허를 취득한 지 1년이 지났더라도 본인이 느끼기에 운전 실력이 미숙하거나 무방비 상태로 도로에 나갈 것이 염려된다면, 와카바 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선 규격화한 초보운전자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초보운전자 스티커 부착 여부나 크기, 위치까지 운전자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현 상황에 우려 섞인 목소리가 제기됐기 때문. 법안이 통과된다면 운전면허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초보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도로 위에서 법보다 중요한 건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의 태도일 것. 상대 운전자의 입장에서 정중한 표현으로 배려를 부탁하는 초보운전자의 자세, 반대로 도로 위 모든 것이 낯설고 무섭게 느껴질 초보운전자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하는 베테랑 운전자의 마음씨. 안전사고는 경력과 연륜을 가리지 않는 법이기에 운전자 모두의 사려 깊은 태도가 필요하다.



□ ◎ 미쓰이다이렉트보험회사 (일본, 와카바 마크)

### 초보운전자 스티커 부착 관련 법률

#### 도로교통법 제42조(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① 누구든지 자동차 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에 교통단속용 자동차·범죄수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도색이나 표지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유사 표지 및 도색 등의 범위)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 제외한다)에 제한되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 또는 표지
2.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기호 또는 문자

## 철도 폐선이 남긴 낭만 여행지 바람이 불어오는 곳

영화 속 장면을 하나 떠올려 보자. 열차가 다니지 않는 낡은 철길 위를 아슬아슬하게 걷는 교복 입은 학생들.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이 모자를 날려버리고, 머리칼을 흩트려놓지 않았다면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었을까. 무릇 철길에는 바람이 불어야 낭만이 시작되는 법. 강원도의 철길도 그렇다. 폐선에 새로운 바람이 불자 사람들이 찾아들기 시작했다. 계절 중 바람이 가장 좋은 이 가을, 낭만 가득한 철도 여행을 떠나보자.

글.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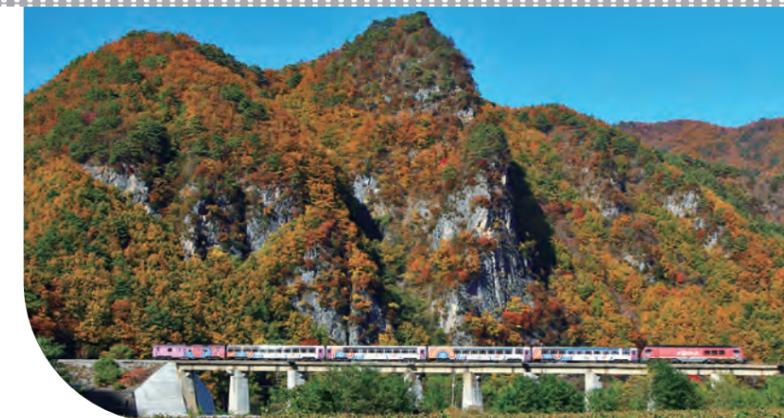
사진.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태백시, 정선군 제공



## 서울에서 아우라지까지 기차길 여행 폐광지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정선

아리랑의 발상지 정선. 때 묻지 않은 자연과 우리나라 산세를 느낄 수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대표 산골 마을이다. 서울에서는 자동차로 약 4시간 거리.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정선으로 향할 때는 출발지부터 기차여행을 선택하곤 한다. 서울 청량리에서 출발해 양평, 원주, 제천을 지나 아우라지까지 이어지는 정선아리랑열차는 정선 오일장이 열리는 2, 7일과 주말마다 1회씩 운행한다. 종착역까지는 약 4시간이 소요돼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장거리를 운전해야 하는 운전자의 부담 대신 온 가족이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광을 감상하며 여행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면 장점.

정선에 도착한 이후에도 낭만적인 기차길 여행은 계속된다. 정선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레일바이크로 알려진 정선레일바이크 덕이다. 정선레일바이크는 정선의 깨끗한 자연을 온몸으로 마주할 수 있는 최고의 여행 수



정선 아리랑 열차 정선 아리힐스 쥘아이어

단으로 손꼽힌다. 정선 구절리역에서 출발해 아우라지역까지 약 7.2km 길이의 철길. 반세기 전만 해도 석탄을 실은 열차가 지나는 길이었다. 탄광에서 채취한 석탄이 옮겨지던 길이 이제는 자연풍경을 감상하는 낭만 여행지로 재탄생했다.

정선레일바이크는 전체 구간을 지나는 데 평균 40분 정도가 소요된다. 약 15~20km 속도로 달리며 산과 숲, 강, 계곡, 터널 등 다채로운 정선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다. 아우라지역에서 출발역인 구절리역으로 돌아올 때는 풍경 열차로 갈아타면 된다. 같은 구간을 되돌아오는 길이지만 레일바이크를 타고 지나올 때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페달을 밟는 수고가 덜어진 덕분인지 더욱 여유롭게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정선은 대표적인 폐광지로 석탄산업이 호황을 누릴 때의 풍경을 간직한 공간들이 많다. 폐광 마을의 정취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마을호텔 18번가를 비롯해, 광산의 풍경을 전시해 놓은 삼탄아트마인도 대표적이다. 기차길을 따라 자연 속에서 휴식을 즐기고, 우리나라 산업화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정선 기차여행을 기억해 두자.



정선 아리랑 열차



## 동쪽 끝 해안선을 따라 동해를 달리는 낭만 여행



□ 바다열차



강원특별자치도는 한반도의 허리를 책임지는 지역이다. 백두대간을 따라 흐르는 깊고 푸른 동해안. 그곳을 따라 내달리는 열차가 있다. 바다열차가 그 주인공. 동해안 바다를 따라 달리는 바다열차는 전 좌석이 측면방향으로 배치하고 창문도 일반열차보다 크게 만들어 바다를 만나기엔 최적의 열차다. 개별좌석과 커플 좌석, 가족석, 특실과 프러포즈 석 등 다양한 좌석이 있어 여행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강릉에서 출발해 동해, 삼척으로 이어지는 노선을 달리는 동안 넘실거리는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 가을별이 만들어낸 윤슬의 반짝임. 바람에 실려 오는 바다의 냄새까지. 파도의 모든 것이 창문을 넘어 전해진다.



□ 정동진

삼척역에서 내리게 되면 장호항은 그냥 지나치지 말 것. 동양의 나폴리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아름다운 해안선을 자랑한다. 캠핑을 즐기는 이들이라면 장호비치캠핑장도 추천한다. 동해안 철도 유휴부지였던 공간을 아영장으로 사용하는 이곳은 서정적인 장호항의 모습을 한눈에 바라보며 캠핑을 즐길 수 있어 낭만 여행지의 마지막 코스로도 제격이다.

## 한반도 허리를 타고 백두대간을 가로지르는 시간여행



□ 백두대간 협곡열차 내부



백두대간을 따라 흐르는 또 다른 열차는 바로 백두대간 협곡열차다. 강원특별자치도 철원부터 경상북도 영주를 잇는 이곳은 백두대간 내륙을 넘나들어 가을빛으로 물든 산세를 감상하기에 좋다. 절벽과 바위산으로 둘러싸인 백두대간 협곡을 사잇길을 다니는 덕에 롤러코스터 같은 짜릿함마저 느껴진다고. 천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유리창으로 제작해 아름다운 풍경을 그대로 담아내는 것 또한 장점이다. 철암 단풍축제 시즌에 맞춰 방문하면 가을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풍경을 질게 감상할 수 있다.



□ 오로라파크

이왕 내륙산간의 정취를 즐기기로 마음먹었다면 여행 시작지를 태백으로 잡아보는 것도 추천한다. 백두대간의 중추인 태백산을 비롯해 매봉산, 백병산, 함백산 등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고지대다. 태백 역시 80년대까지 석탄산업의 메카로 불리며 엄청난 발전을 이룬 도시다. 탄광에서 생산된 무연탄을 실은 화물 열차가 오가던 통리역은 오로라파크로 새롭게 태어났다. 철도와 별을 주제로 태백 밤하늘의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는 고지대 테마파크다. 매표소로 운영되는 통리역을 지나 들어가면 세계 5개국의 고원 역사를 만나볼 수 있도록 꾸며졌다. 별빛전시관과 야외공원에는 오로라와 사계절의 별자리를 만날 수 있어 아이, 친구, 가족과 함께하기에도 좋다. 태백 유일의 타워전망대인 눈꽃전망대는 아찔하게 높은 산의 풍광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 탄광의 역사부터 전 세계 기차역을 오가며 별빛 여행까지 즐길 수 있는 오로라파크에서 출발한다면 백두대간의 다양한 표정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 원주 중앙선 폐선 관광지 개발

2021년 폐선된 중앙선 반곡역도 관광지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원주시는 반곡역부터 금대리 따리굴까지 7,706m 구간에 관광열차를 운행한다. 이 중 가장 주목받는 구간은 바로 '따리굴' 구간이다. 따리굴은 일제강점기 1942년 개통된 중앙선 철도 치악산 자락에 있어 높은 고도차를 극복하기 위해 따리 형태로 건설된 터널이다. 총길이만 1,950m에 달하는 이 따리굴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환상적인 빛 체험이 가득한 공간으로 꾸며진다. 또한 터널 미술관과 LED 수족관, 갤러리 카페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산업과 교통환경이 변화하며 폐선을 활용한 관광지도 늘어나고 있다. 지역의 특성과 문화, 역사가 어우러지는 관광지가 지역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길 기대해 본다.



## 도로교통공단, 폭우 피해 발생한 도로 305km 점검 '206건 안전시설 개선대책 지자체 제공'



도로교통공단은 폭우로 피해를 입은 도로구간에 대한 2차 피해 방지와 신속한 복구를 위한 안전시설 개선대책을 수립해 지자체에 제공했다.

지난 7월부터 이어진 폭우 피해와 추가적으로 발생한 태풍으로 파손된 안전시설 점검을 위해,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대전세종충남지부·경북지부는 긴급재난지원반을 편성하여 세종시와 청주시 등 11개 지자체 305km 도로 구간에 대한 긴급 점검을 진행했다.

도로교통공단 긴급재난지원반은 피해구간의 도로파손 및 배수불량 여부, 교통안전시설과 도로안전시설의 기능 저하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노면표시 재도색,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파손 복구 등 206건의 개선대책이 나왔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교통안전 전문기관으로서 피해가 발생한 도로구간 안전시설의 신속한 개선 및 복구를 위한 점검을 진행했다”며, “개선 방안을 지자체에 제공해 2차 교통사고 피해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폭우 피해구간 긴급점검 결과>

지부	점검 지자체	점검 연장	개선 대책
충북지부	청주, 괴산	40.3km	81건
대전세종충남지부	세종, 공주, 청양, 논산, 부여	120.8km	61건
경북지부	문경, 예천, 영주, 봉화	143.9km	64건

## 도로교통공단-우아한청년들, '배달이륜차 준법 라이더 캠페인' 진행



도로교통공단은 우아한청년들(대표 김병우)과 함께 8월 31일(목) 경기도 남양주 소재 배민라이더스쿨에서 '배달이륜차 준법 라이더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배달이륜차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이어짐에 따라, 다시금 배달이륜차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최근 '배달이륜차 위험운전행동 유형 조사' 보고서를 통해 유형화한 17가지 위험운전행동 중 빈도가 높은 '정지선 위반', '교차로 선두차량 앞지르기', '보도 통행' 등에 대한 교통안전 메시지를 전한다.

더불어,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기 전에 미리 출발하는 '예측 출발'에 대한 메시지도 강조한다. 최근 공단이 진행한 관찰 조사에 따르면, 이륜차 운전자들의 신호 변경 후 평균 출발 시간은 -0.05초로, 조사 대상의 약 32.6%가 신호가 바뀌기 전에(0초 미만) 출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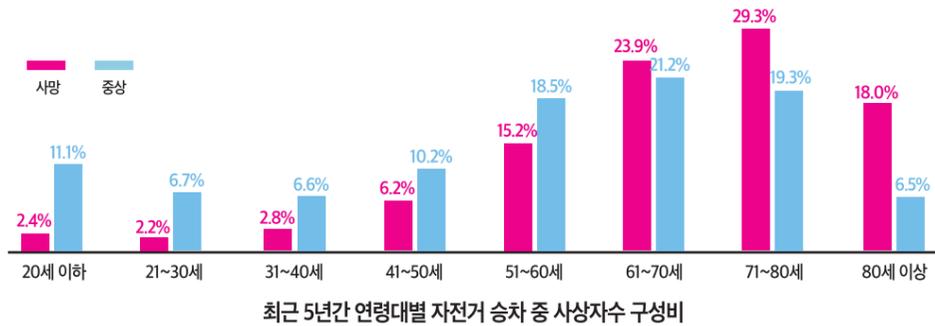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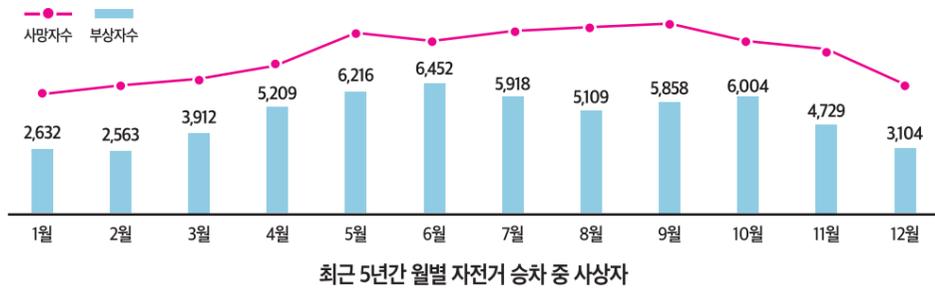
공단은 이륜차 운전자들의 교통안전 의식 고취를 위한 '준법 라이더' 배지와 스티커를 제작하여, 우아한청년들과의 협업을 통해 교육생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준법 라이더 배지와 스티커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안전한 이륜차 운전자'를 상징하며, 스티커의 경우 고휘도 반사 재질로 제작되어 야간에 이륜차의 시인성을 높여준다.

이 외에도 안전한 이륜차 운행을 당부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배부하는 등 홍보에 열을 올릴 예정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륜차는 구조 특성상 교통사고 발생 시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이륜차 운전자들의 준법정신이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자전거 승차 중 교통사고 사망자 5년간 959명

도로교통공단, 최근 5년간(2018~2022년) 자전거 교통사고 특성분석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5년간(2018~2022년)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자전거 승차 중 발생한 사망자가 959명, 부상자는 57,706명으로 나타나 자전거 이용자들의 교통안전의식 제고가 요구된다

자전거 승차 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연령대로 살펴보면 60대~70대가 전체 사망자(959명)의 53.2%(510명)를 차지하였고, 중상자의 경우에도 4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은 2022년 자전거 교통사고를 분석하여 사고다발 지역 213개소를 선정,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자전거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지점으로는 경기도 김포

시 고촌읍(법률방송 앞 사거리 부근),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울속도휴게소삼거리 부근) 등이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빅데이터융합센터 박해수 과장은 “자전거는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이용인구가 1,340만 명에 이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자전거 교통수단분담률은 아직 1.2%에 머물러 있다”며 “자전거가 효과적인 교통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車)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음주운전 금지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올바른 운행으로 안전한 자전거 운행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자전거 교통사고다발지역 상세 자료는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koroad.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GIS분석>교통사고GIS>교통사고다발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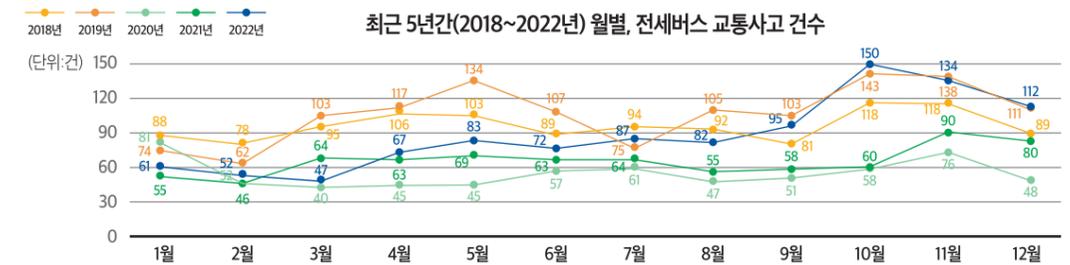
##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사고다발지역 316개소 선정



도로교통공단이 ‘음주운전 사고다발지역’ 316개소를 선정하고 발표했다. 2022년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15,059건으로, 214명이 사망하고 24,261명이 부상을 입었다. 음주운전 사고는 연간 꾸준히 발생하는 사고로 월평균 1,255건, 일평균의 41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공단에서 선정한 음주운전 사고다발지역 316개소는 최근 3년간(2020~2022년) 반경 100m 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중상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지점이다.

## 전세버스 교통사고, 코로나19 이전 수준 복귀... 휴가철·행락철에 사고 많아



도로교통공단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감했던 전세버스 교통사고 건수가 지난해 코로나 확산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다고 밝히며, 전세버스 운행 및 탑승 간 안전 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전세버스로 인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사고 건수는 1,042건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인 1천 명 초반대로 복귀했다. 월별로 보면 전세버스 교통사고는 주로 단체 장거리 이동이 증가하는 휴가철, 행락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세버스 교통사고 4,893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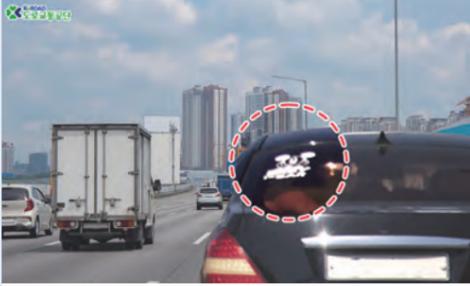
중 약 38%(1,854건)가 여름 휴가철에서 가을 행락철로 이어지는 8월~11월에 발생했다. 전세버스 운전 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줄지어 운전하는 대열운행의 경우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기 쉽다며, 도로교통공단은 전세버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대열 운행 금지’, ‘앞차와의 안전거리 확보’, ‘장거리 운행 시 충분한 휴식’ 등 안전 수칙을 당부했다. 또한 탑승객은 ‘음주가무 금지’, ‘안전띠 착용’을 준수해야 한다.

## 도로교통공단이 전해드립니다! 화제의 교통안전 정보

도로교통공단은 다양한 소통 채널(SNS)을 통해 교통안전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최신 정보를 모아 소개합니다.

**N** 초보운전 스티커 올바르게 부착하세요

초보운전 스티커, 어떻게 부착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N** 영유아 카시트 올바르게 설치해요

우리 아이를 위한 생명띠, 올바른 카시트 장착 방법을 알아보세요.




**N** 자동차 고무 부품 관리법

안전한 운행을 위한 자동차 부품 관리 방법을 알아봅시다.




 올바른 비상등 사용법

아무 때나 켜면 안 돼요~ 올바른 비상등 사용법을 정리했습니다.




**N** 골목길 깜빡이 운전을 아시나요?

사고가 잦은 골목길 운전 이렇게 하면 더 안전합니다.




**N** 이륜차 안전하게 타세요

사고 나면 더 위험한 이륜차, 안전하게 타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f** 자동차 브레이크 바로 알기

고장나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브레이크, 올바르게 알고 관리해요.




 **행락철, 초행길 운전은 이렇게!**

초행길에서 헤매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 하반기에는 교통약자·취약분야 교통안전 중점적으로 챙긴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따르면, 정부는 교통안전 대책의 상반기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주요 추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3년 하반기 교통안전대책 점검회의(이하 점검회의)를 9월 5일(화) 개최했다.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교통약자, 대형사고 등 교통안전 취약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보행자와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행안부, 경찰청과 합동으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회전 일시정지 정착을 위한 홍보·계도활동을 계속하고, 우회전 신호등도 설치(현재 156개 설치)해 나간다. 보행자우선도로 39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고, 마을주민 보호구간도 87개소(국도 60개소, 지방도 27개소) 확대하는 등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개학 시기(2023.8월말~9월말)에 집중하여 학교주변에 대한 관계기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방호울타리를 신규 또는 교체 설치하며(736개소), 노인보행자 고위험지점 등 교통약자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그 실태를 점검하여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이륜차의 인도·횡단보도 주행 행위에 대해 경찰의 상시적 단속과 공익제보단의 제보를 통한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이륜차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이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단체 관광객의 수요가 높은 버스와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함께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사고 이력이 있는 버스업체(200개)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불시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이를 통해 사고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버스 교통사고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고속도로 정체 및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행위는 계도 및 선별적 단속을 통해 지정차로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착시키고, 행락철에는 대형버스 등 법규위반 단속, 연말에는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통해 고속도로 사고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드론을 활용하여 고속도로상 법규위반 행위를 시가 자동 선별·신고하는 'AI 자동적발 시스템'을 구축하여 2023년 하반기 시범운영과 효과분석을 거쳐 단속에 활용할 예정이다.

화물차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고 위험이 높은 대형화물차(25톤 이상)에 대한 운행기록장치(DTG)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인터넷쇼핑몰 등 무점포 판매업에 활용되는 비사업용 화물차(예 쿠팡)도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내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외로, 교통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행사 및 홍보활동도 추진한다. 각종 행사(보행자의 날, 교통문화발전대회 등), 캠페인(횡단보도 손짓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보행자 및 고령자 안전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공익광고도 추진할 계획이다.

\* (대상)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주변 (참여) 행안부, 교육부, 경찰청, 소방청, 지자체 등

\*\* 교통안전법 제33조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에 대해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점검하는 것으로 중상1명+경상1명 이상 사고가 발생한 버스업체 대상 실시

\*\*\* 가을철 관광지 10여곳 대상으로, 국토부, 지자체,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합동점검



## 교통안전 십자말풀이

신호등 독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교통안전 십자말풀이에 도전해 보세요.  
십자말풀이 문제를 풀고 뉴스레터 구독신청까지 해주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합니다.

	5. ↓		1. 3. → ↓			
	2. →					
4. →						



### 문제

- 보행자와 자동차 도로의 구분이 없는 도로를 ○○○○○○라고 한다.
- 도로 가장자리 황색 복선은 ○○○○○○를 의미한다.
- 교통약자 ○○○○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다.
- 보행자가 ○○○○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건너는 행위를 무단횡단이라 한다.
- 단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 참여방법

- 십자말 풀이 문제를 푼다.
- 휴대전화로 아래 QR코드를 찍어 연동되는 페이지에서 정답을 채워 넣는다.
- 이름, 뉴스레터를 수신할 이메일 주소를 적고 뉴스레터 구독신청을 완료한다. (개인정보이용동의 필수)
- 작성한 내용을 확인 후 양식을 제출한다.



이벤트 참여하기

### 신호등 7+8월호 호동이 색칠공부 이벤트 당첨자

9+10월호는 66쪽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박혜인(3778)



오푸른(8300)



최은지(4487)



한미경(1026)



김경미(3636)

# 신호등 과 함께 만드는 도로교통 안전 생활

## 「신호등」 정기구독 안내

- 「신호등」은 다양한 도로교통 소식과 교통안전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행하는 교통안전 종합정보지입니다.
- 매 짝수달 첫째 주 발행되던 신호등 발행일이 달라집니다. 7+8월호부터 발행일이 조금씩 당겨지며, 2024년 1+2월호 부터는 매 홀수달 첫째주에 발행됩니다.
- 정기구독을 신청하시면 신청일로부터 3년간 무료로 발송됩니다.



QR코드를 촬영하시면 「신호등」 정기구독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QR코드를 촬영하시면 온라인에서도 「신호등」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 신호등 정기구독 연장 안내

기존 「신호등」 구독자 여러분 중 앞으로도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독자 엽서 뒷면 '구독'란에 표시해 보내주세요. 구독 연장에 동의하시면 동의한 날부터 3년간 「신호등」이 발송됩니다.

## 구독

기간: 2023년 「신호등」 9+10월호(9월 발행)까지

- 수집된 정보는 「신호등」 발송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2024년부터는 구독 연장 미신청 시 자동 해지됩니다.
- 즉시 구독 해지를 희망하시는 경우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바랍니다.
- 정기구독 연장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최근 1년 이내에 구독 연장에 동의하신 분은 재동의할 수 없습니다.
- 개인 구독자는 1가구 1부 배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주소 중복 신청 시 예고 없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구독 연장 시 기존 구독자의 이름과 도로명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

지부	서울	(02) 3498-2114
운전면허시험장	강남	1577-1120
	도봉	
	강서	
	서부	

### 경인권

지부	인천	(032) 830-6114
	경기	(031) 8006-1114
TBN 경인방송	100.5MHz	(032) 453-1114
	105.5MHz	영종도중계소
운전면허시험장	인천	(032) 810-2300~2
	용인	(031) 289-0100~1
	안산	(031) 490-2800~2
	의정부	(031) 850-8700~1

### 충청권

지부	대전·세종·충남	(042) 520-0114
	충북	(043) 717-7114
TBN 대전방송	102.9MHz	(042) 600-0114
	103.9MHz	서산중계소
	102.9MHz	공주중계소
TBN 충북방송	103.3MHz	(043) 210-0114
	93.5MHz	충주중계소
운전면허시험장	청주	(043) 290-0900
	충주	(043) 840-4600~2
	대전	(042) 250-3300~1
	예산	(041) 330-7400~1

### 전라권

지부	전북	(063) 281-6114
	광주·전남	(062) 530-6114
TBN 광주방송	97.3MHz	(062) 970-1114
	103.5MHz	광양중계소
TBN 전북방송	102.5MHz	(063) 210-3114
	106.1MHz	장수중계소
운전면허시험장	전북	(063) 210-3800~1
	전남	(061) 339-1500~2
	광양	(061) 760-1600

### 강원권

지부	강원	(033) 250-9114
TBN 강원방송	105.9MHz	(033) 749-0114
	103.7MHz	춘천중계소
	105.5MHz	강릉중계소
	95.1MHz	양양중계소
	95.3MHz	동해중계소
운전면허시험장	89.3MHz	평창중계소
	춘천	(033) 269-1200~1
	강릉	(033) 640-3200~1
	원주	(033) 737-0600
	태백	(033) 550-5700

### 경상권

지부	부산	(051) 629-9114
	대구	(053) 659-6114
	경북	(054) 478-6114
	울산·경남	(055) 270-6114
TBN 부산방송	94.9MHz	(051) 610-5114
TBN 대구방송	103.9MHz	(053) 606-0114
	95.9MHz	김천중계소
TBN 울산방송	104.1MHz	(052) 290-8514
TBN 경북방송	103.5MHz	(054) 240-6214
	103.7MHz	울진중계소
TBN 경남방송	95.5MHz	(055) 272-6114
	100.1MHz	진주중계소
운전면허시험장	부산북부	(051) 310-7600~1
	부산남부	(051) 610-8005
	대구	(053) 320-2400~1
	울산	(052) 255-8700~2
	문경	(054) 550-2600~1
	포항	(054) 290-9300,4
	마산	(055) 240-8100

### 고객지원센터

☎ 1577-1120

단축번호

- 1 고흥운전자 교통안전교육
- 2 응시일정 변경
- 3 면허 관련 안내
- 4 시험 관련 안내
- 5 시험장 업무시간 및 위치
- 6 토요일근무시험장
- 7 교통안전교육
- 8 강사·검정원·사고감정사 전문교육
- 9 상담사 연결

### 제주권

지부	제주	(064) 710-9114
TBN 제주방송	105.5MHz	(064) 717-8114
	105.9MHz	서귀포중계소
	105.5MHz	광해약중계소
운전면허시험장	제주	(064) 710-9200~1

# KoROAD 독자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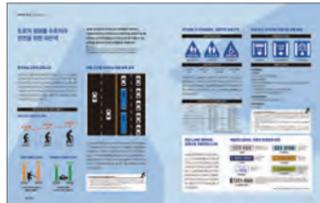
「신호등」은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함께 만듭니다. 매호 「신호등」을 읽고 느낀 점을 독자 엽서로 보내주세요.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 드립니다.



### 환경X안전

기사를 읽고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체증 현상은 사고 유발 및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걸 알았습니다. 교통흐름에 맞는 신호체계 개선이 안전과 환경을 위한 방법이라는 것도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정빈(2376)



### 안전과 위험 사이

기사를 읽고 고령자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파란색 표지가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를 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박새별(0466)



### 운전대 심리학

초보 시절 한 번 몸에 굳어진 잘못된 운전 습관은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바꾸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초보운전자일 때부터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은경(9135)



### 자동차 백과

여름철 자동차 관리 방법 중에서 인화성 물질은 절대 자동차 안에 두지 않는 것, 주차 중 공기가 순환될 수 있도록 창문을 살짝 열어 둔다는 것을 지금 실천 중입니다. 와우! 이리 좋은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역시 신호등입니다. 위급 발생 시 차량 탈출 방법도 잘 숙지해 뒀습니다.

전외주(9416)



### 트렌드 읽기

다른 지방에 휴가를 가면 차를 빌리게 되는데, 렌터카 계약 내용을 꼼꼼히 챙기고 렌터카 사용 시에도 차량상태 점검이 중요하다는 것을 되새겼습니다. 특히 렌터카 또한 자신의 차처럼 잘 운행해야 함을 일깨워 주는 기사였습니다.

김호진(0056)

이 밖에 「신호등」에 바라는 다양한 독자의견을 hongbo@koroad.or.kr로 보내주세요.

# 「신호등」 모의고사

다음 문제의 정답을 맞춰 주세요.

정답은 2023년 「신호등」 신호등」 9+10월호에 숨어 있습니다.

**Q1** 이번 호 「신호등」의 주제는 ‘분홍색’입니다. 다음 중 분홍색과 관련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 ① 신호등    ② 횡단보도    ③ 보호구역    ④ 노면 색깔 유도선

**Q2** 다음 중 이번 호 세계 한 바퀴에 소개된 도시가 아닌 곳은?

- ① 브르노    ② 부다페스트    ③ 체스키 크룸로프    ④ 프라하

**Q3** 다음 중 이번 호 도로상담소 코너의 주제로 알맞은 것은?

- ① 반려동물 교통사고    ②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③ 주차 중 교통사고    ④ 반려해변

참여 방법 2023년 10월 20일(금)까지 '정답/이름/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적어 아래 메일로 보내 주세요.

[hongbo@koroad.or.kr](mailto:hongbo@koroad.or.kr)

### 과월호 퀴즈 당첨자 안내

지난 호 정답

Q1. ④ 영업용 차 번호판    Q2. ② 머리 받침대(헤드레스트)

Q3. ③ 렌터카 이용법

박장규(8964), 고은주(6090), 권영신(6939), 박순혜(3654)

### 과월호 블랙박스 SOS 당첨자 안내

지난 호 정답

① 신호위반

강휘빈(6788), 박용민(2460), 정주식(6731), 황금순(2602)

### 과월호 진실 혹은 거짓 당첨자 안내

지난 호 정답

Q1. ④ 다차로 하이패스 구간은 규정된 속도를 준수하고 하이패스 단말기 고장 등으로 정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도착지 요금소에서 정산하면 된다.

Q2. ②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

Q3. ③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 표시는 적색이다.

곽성재(6470), 김현숙(3267), 강주찬(9853), 김윤희(4059)

「신호등」은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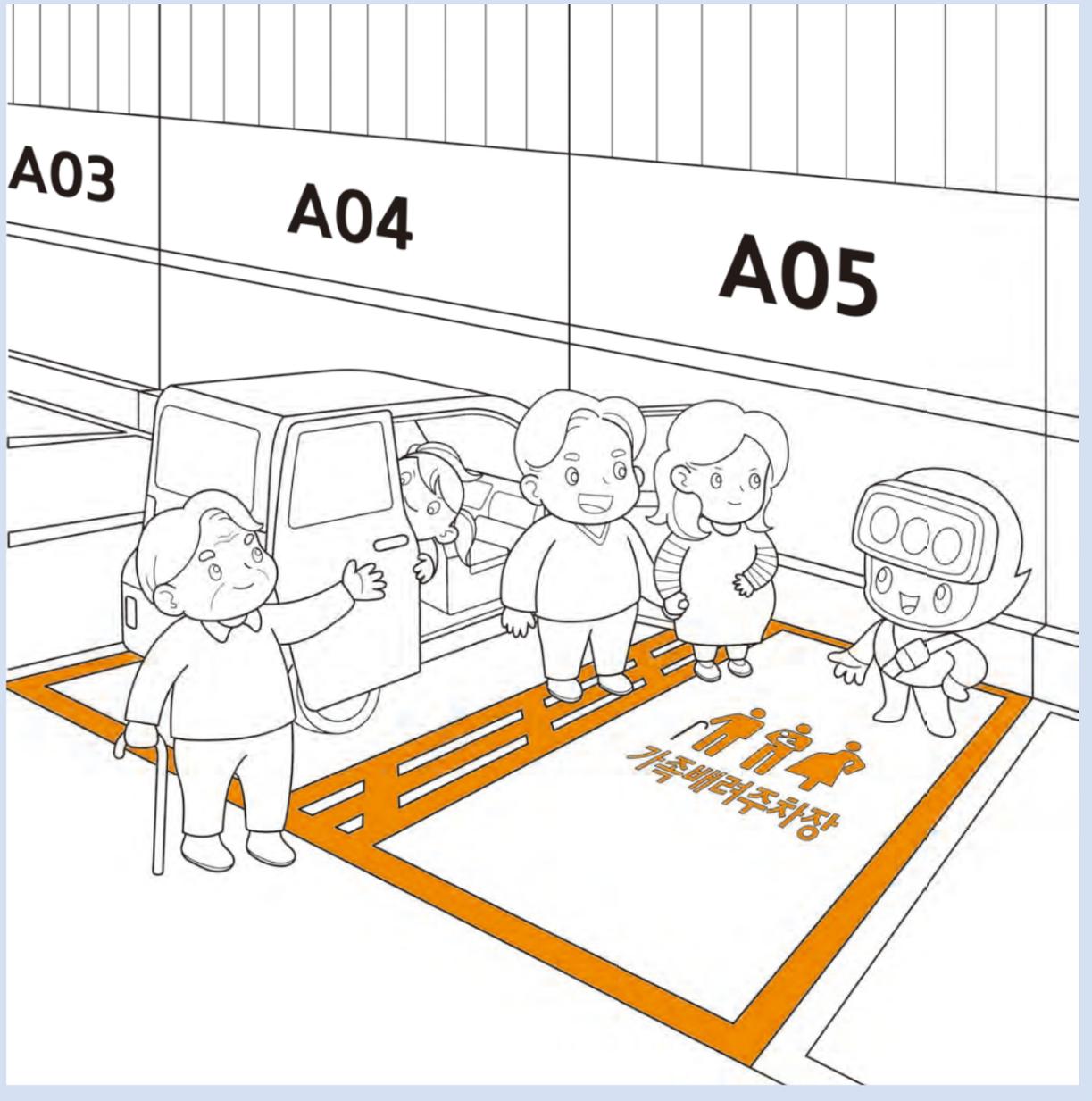
당첨자 및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모바일 교환권)을 보내드립니다. 상품 발송 시 휴대전화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선물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호등」에 게재된 내용의 오류를 발견해 아래 연락처로 제보해주실 경우, 감사의 의미를 담아 소정의 선물을 증정합니다.

문의. 02-2090-1105 (신호등 편집실)

# '호동이'와 함께 도로교통 안전 생활을 약속해요!

도로교통공단의 마스코트 호동이는 교통안전의 메신저입니다.  
호동이를 예쁘게 색칠하면서 안전한 도로교통 생활을 약속해 봅시다.



**K-ROAD 도로교통공단**

## 우회전? 보행자를 기억하세요!

우회전할 때, 많이 헛갈리셨죠?  
헛갈릴 땐 **보행자**를  
기억하면 됩니다!

- 1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다시 출발하기 전 **보행자**를 확인하세요!
- 2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하세요!
- 3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넜다면, 서행하여 통과할 수 있습니다!

+ 사각지대로 인해 보행자를 못 볼 수 있으니 잘 살피주세요!

---

- 1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다시 출발하기 전 **보행자**를 확인하세요!
- 2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하세요!
- 3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넜다면, 서행하여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일시 정지  
보행자가 없으니 출발해야지

+ 사각지대로 인해 보행자를 못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주변을 잘 살피며 우회전하세요!

전방 사각, 필리 사각, 필리 사각, 사이드미러 사각, 사이드미러 사각, 후방 사각

보행자가 길을 다 건넜네!  
이제 보행자가 없으니,  
서행해서 통과해야지!